

# GLOBAL 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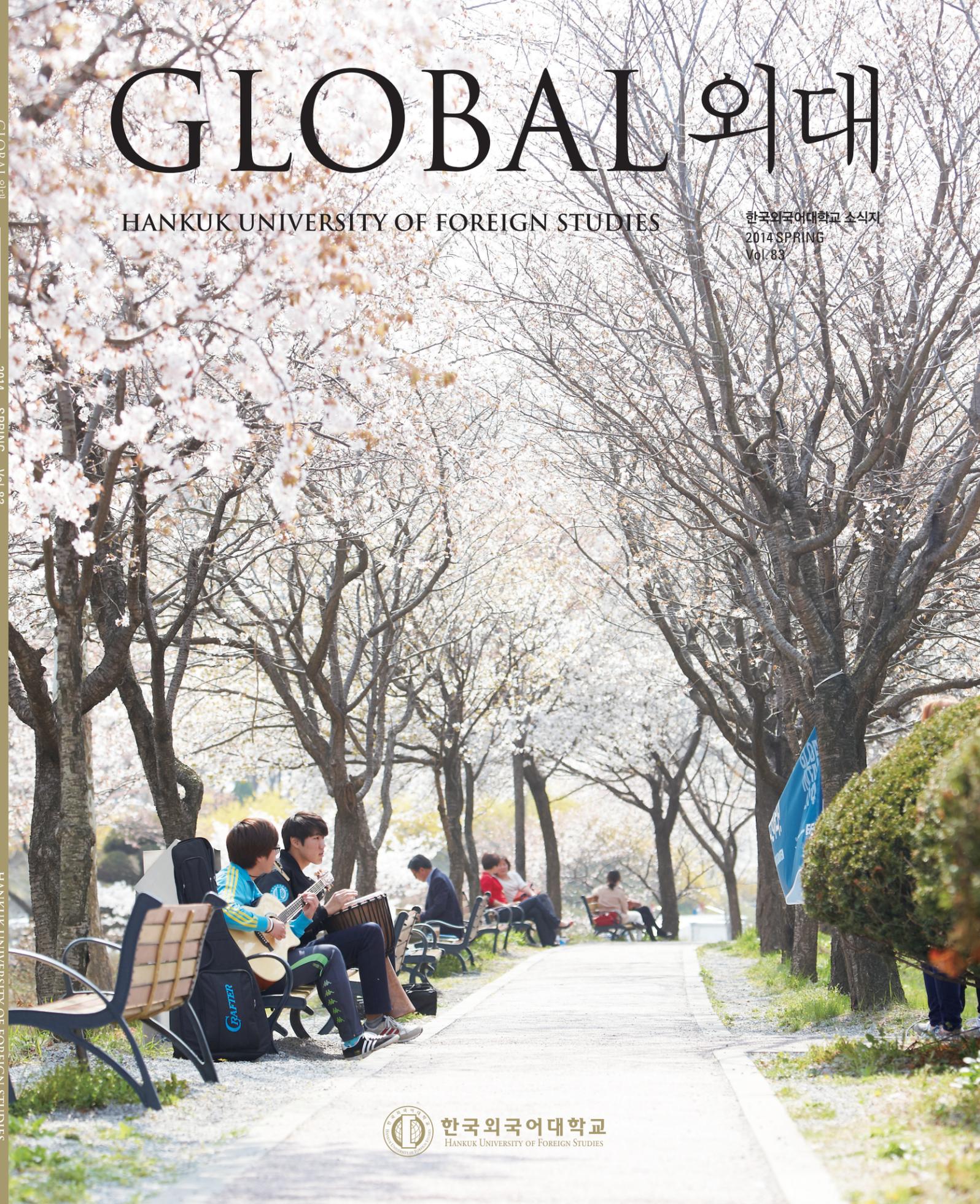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SPRING  
Vol. 83

GLOBAL 외대

2014 SPRING Vol. 83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캠퍼스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 031.330.411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서 깊은 맛과 향을 간직한 와인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일구어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의 역사와 영광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외대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Stag's Leap Hands of Time 2011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51%, 메를로 46%, 시라 3%  
**생산지역** Stag's Leap District, Napa Valley, USA(스택스 립 디스트릭트, 나파밸리, 미국)  
**특징** 베리류의 과일향과 벨벳 같은 질감, 은은한 허브와 다크 초콜릿의 여운은 스택스 립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와인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스택스 립은 1976년 국제와인품평회에서 프랑스 특급와인을 모두 누르고 1위를 차지한 와인입니다.

## Le Charme de Marjosse 2009

**포도품종** 메를로 76%, 까베르네 소비뇽 18%, 까베르네 프랑 6%  
**생산지역** Bordeaux, France(보르도, 프랑스)  
**특징** 미국의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가 '보르도 와인에서 추천했으며, 샤토 슈발블랑 디렉터, 샤토 디켐의 CEO가 양조한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보르도 와인의 특징인 구조감이 뛰어나며 탄닌과 산도가 잘 조화된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 Kaiken Terroir Series Malbec 2011

**포도품종** 말벡 80%, 보나르다 12%, 뽀띠베르도 8%  
**생산지역** Mendoza, Argentina(멘도사, 아르헨티나)  
**특징** 말벡이 가지고 있는 묵직함에 보나르다의 밝고 섬세한 터치를 가미하였으며, 뽀띠베르도의 신선한 아로마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와인입니다. 붉은 과일, 특히 딸기 향이 지배적이며 말벡의 깊은 맛이 더해져서 견고하지만 우아한 와인의 맛이 느껴집니다.



\* 수익금은 한국외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집니다.

## Content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60<sup>th</sup> Anniversary

## Special Theme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끄는 100년 <한국외대 개교 60주년>

- 04 60주년 기념사
- 06 60주년 축하
- 09 100년 외대 비전 선포문
- 10 개교 60주년 기념식, 외대인의 밤
- 14 외대상 수상자 인터뷰
- 16 자랑스러운 외대인  
영화배우 안성기 동문(베트남어과 70)  
폴란드문화훈장 받은 최성은 교수(폴란드어과 90), 이지원 박사(폴란드어과 92)
- 22 HUFs Hot Issue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수 부문 전국 1위 수상, 산업경영공학과  
등문초청특강 HUFs Proseminar
- 26 융복합 리더 HUFs  
국내 최초 외교·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LD학부
- 28 HUFs 연구소 탐방  
차세대 바이오산업연구의 핵심기지, 바이오산업융합백질연구센터

## Trend&Culture

- 32 세계는 지금  
이슬람 금융의 핵심, 수쿠크를 주목하라
- 34 Art&Culture  
영화 <그늘린 사랑>을 통해 바라본 그리스신화 <오이디푸스이야기>
- 38 동문작가와의 만남  
<사상으로서의 조선문학> 저자 이혜진(국문학박사, 철학과 93)

## HUFs News & Donation

- 40 HUFs 주요단신 뉴스
- 44 HUFs 교류협정 뉴스
- 45 HUFs 교수동정 뉴스
- 46 한국외대사업본부 뉴스
- 48 한국외대출판부 신간안내
- 49 사이버한국외대 뉴스
- 50 HUFs 동문동정 뉴스
- 53 HUFs 발전기금 뉴스
- 54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식지

2014. SPRING Vol.83

발행일 2014. 5. 15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이유나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홍보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2. 2173. 2093

제작대행 (주)꽃피는청춘

구 입 방 법 ①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홈페이지 접속 (<http://builder.hufs.ac.kr/user/hufsfund/>) ② 자주 찾는 서비스의 개교기념와인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③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에서 신청서를 판매회사로 전달 ④ 판매회사에서 신청자에게 결제 및 배송관련 안내 연락

구 입 문 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TEL : 02-2173-2791

세계계를 품은 60년

세계계를 이끄는 1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다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남주

## 한국외국어대학교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12만 동문과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외대 60년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1954년 4월 20일, 우리 대학 설립자 김홍배 박사님께서 60년 전 종로 임시 교사에서 시작된 첫 수업을 함께하시며,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며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외대인들을 떠올리셨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외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화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오늘 우리 외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한 대학으로 성장하였고,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많은 구성원들의 노력의 흔적이, 그리고 외대인의 미래·세계지향적인 열정의 자화상이 오늘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은 1980년 용인분교 개설 이후 33년 만에 통합을 이루어 명실공히 대형 대학의 위상으로 다시 출발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과거 성장에 도취되어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외대 100년의 미래를 위해 힘과 긍지를 모아 더 높은 비전을 설계하고, 대학의 질적 성장을 이룩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0년 전 설립자께서 품으신 '진리'의 탐구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의 창학 이념은 큰 뜻을 다시금 새기고 주어진 사명을 담담하게 이어갈 때가 가까운 미래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선 외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나간 60년의 역사가 우리 외대인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더욱 공고해지고 그 힘을 묶어 우리 사회 발전에 촉매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가올 외대 100년의 희망찬 역사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 100년 외대의 비전으로 또 다른 한국외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주 이사장님과 법인 이사님, 박철 전 총장님과 외대 전직 총장님, 선배 동료 교수님, 직원 및 학생 여러분, 권순한 총동문회장님, 이덕선 회장님, 최상학 고문님을 비롯한 국내외 동문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외대를 찾아주신 성길 주한미국 대사님을 비롯한 각국 대사님, 동경외국어대학교 히로타카 타테이시(Hirotaka Tateishi) 총장님, 텐리대학교 츠네노리 야마다(Tsunenori Yamada) 전 부총장님, 김주성 교원대 총장님과 국내의 자매대학 총장님, 각교 방문자대표님,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1954년 한국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개교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사명을 다해 온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 김홍배 박사가 5개 외국어학과만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이제 5대양 6대주에서 잠들지 않는 대학이 되어 어느 누구도 이루어 낼 수 없는 우리 외대만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60년 역사와 전통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100년 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교는 이제 행·재정적 역량 제고와 학문적 통섭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입니다.

'100년 외대' 개척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에 대학타운 조성을 시작하고, 글로벌캠퍼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외대병원의 배속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관·산·학 협업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 학문 시장의 수요변화에 조용히 나아가 하겠습니다.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우리 학교의 고유 가치를 심화하고 그에 기반한 융·복합으로 저변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서울·용인 캠퍼스의 통합운용에 맞추어 글로벌캠퍼스에 100년 비전을 담아 또 다른 한국외대를 개척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대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인식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른바 '또 다른 외대'는 우리 대학의 재단, 교수·학생·직원, 그리고 12만 전 동문을 아우르는 인식의 공유와 이를 위한 공론장 위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외대만의 가치있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

들이 학교 발전이라는 사명 아래, 하나되어 인내하고 헌신·봉사한다면 높은 가치를 실현하는 한국외대를 향한 당면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교 6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는 이 자리가 100년 한국외대의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 된 우리의 노력은 영광스러운 한국외대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한국외대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성취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우리 사회와 인류에 이바지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다 함께 다짐하는 한국외대인의 준엄한 약속,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한국외대가 있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권순한

##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세계 최고 명문대학으로 만들어갑시다

친애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음이 약동하는 캠퍼스에는 하얀 벚꽃이 눈처럼 휘날리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이렇게 화사한 봄날에 자랑스러운 모교의 건학 6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2만 동문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교의 개교기념일을 축하하고자 전 세계에서 방문하신 해외 동문 여러분들께 각별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엇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은 계절의 여왕인 5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사이클을 시작하는 건학 60주년을 맞을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본교와 분교 체제로 운용되던 서울캠퍼스와 용인 글로벌캠퍼스가 하나의 캠퍼스로 통합 출범하는 원년입니다. 게다가 2월에는 지난 8년간 학교를 크게 발전시킨 박철 총장님이 명예롭게 물러나시고 김인철 교수님이 새 총장으로 취임하시어 새롭게 발전하는 외대의 모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아마도 외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이렇게 응집된 여러 기운을 외대 발전의 기폭제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동문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미래를 기약하는 하이라이트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뜻깊은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교의 설립자이신 김홍배 박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동상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 준 모교의 회갑을 자축하고 설립자님의 공덕을 기리는 것은 모교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외대인들의 자신감과 긍지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외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대학교, 세계적인 외국어대학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년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우리 모교를 방문한 것도 이를 확인시켜 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모교가 과거의 영광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문들이 합심하여 모교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봅니다. “국적은 바꾸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모교는 자부심의 원천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모교는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모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국외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명문 대학에는 반드시 명문 동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명문 동문이 되어 주신다면 건학 100년을 맞는 40년 후에는 우리 모교가 세계 최고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희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외대 가족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  
H.E. Sung Y. Kim, U.S. Ambassador to Korea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외국어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며칠 전 있었던 비극적인 여객선 침몰 사고의 피해자 여러분들과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김인철 총장님, 이남주 이사장님, 권순한 총동문회장님, 히로타카 타케이시 동경외대 총장님, 박철 전 총장님, 외교사절 여러분들, 교직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이렇게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연사분들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2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바로 이곳 오바마홀에서 약 1500여 명의 굉장히 열정적인 청중들 앞에서 한국 최초의 대중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연설에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부임한 중에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이 홀을 명명한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1년 전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상공회의소 설립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이 훌륭한 한국외대보다 딱 한 살 더 나이를 먹은 셈입니다.

환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한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있을 건지를 기대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하여서 성취한 여러 가지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특별한 한미양국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외대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에 걸맞는 여러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2012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외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외국어대학교 중의 하나이며 공무원, 외교관, 그리고 재계인사 등등 현대 사회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을 만들어낸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고 있으며 한국외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향후 60년 동안 배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한 미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우 뛰어난 한국외대 졸업생들을 저희 대사관 직원으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외대 졸업생들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외대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훌륭한 일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gratulatory Message 60<sup>th</sup> Anniversary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rotaka Tateishi**  
President,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Firs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60th anniversary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r HUFS. As president of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am deeply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to this most grand of occasions an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ay a few words. As you know,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r TUFUS, is a partner university of HUFS. We are one of the oldest universities in Japan, tracing our origins back to the Institute for Research of Foreign Documents which was established in 1857. The official year of establishment of our university as a modern school organization is 1873 when Tokyo School of Foreign Languages was founded. After several mergers and reorganizations, Tokyo School of Foreign Languages was made into an independent state-run educational institution in 1899. We started as the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1949 so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e celebrated our 140th anniversary last year. In “Grand Design for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UFUS commits to train people who have high-level language skills an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ultures and societies of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and then to send them out to make their contribution to the world. The Institute for Research of Foreign Documents, our predecessor mentioned earlier, was set up by the Tokugawa shogunate in the late Edo period to conduct research and education on Western learning and also to translate diplomatic documents. Since those days, TUFUS has consistently dedicated itself to training global human resources and has produced graduates who have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arena as diplomats,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sonnel, and businesspersons. Moreover, the TUFUS Japanese Language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ich is a world-class center for Japanese language education, welcomes outstandi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as students under Japanese Government (Monbukagakusho) Scholarships and develops them into global human resources who have mastery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With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today, Japanese universities, like those in Korea, are at an important crossroads and constantly need to continue to change and evolve. In academic year 2012, TUFUS launched a system of specialized education in 27 languages and 14 areas by reorganizing its Faculty of Foreign Studies and adding one new language and three new regions. We also started the Global Liberal Arts Program, a curriculum unique to TUFUS. In addition, about 60 foreign languages can be studied on a secondary basis. Harnessing TUFUS’s fine history, we aim to build an educational framework that develops multilingual global citizens who have rich imagination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as well as self-direction, initiative, and a spirit of challenge. Since becoming president of TUFUS last April, I have advocated the following as the core of TUFUS governance: “Making TUFUS a hub of dialogue and co-creation that open new horizons in the 21st century.” For the future of TUFUS, it is critical that all academic and administrative staff and students earnestly exchange ideas and urge each other to pursue the creative.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accelerate dialogue and co-creation with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around the world. Domestically, we have already formed cooperation agreements with various Japanese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other fields and have initiated exchange in such fields as medicine, engineering, and agriculture.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for the formation of the Foreign Studies University Consortium of Japan from next month. The Consortium will be composed of the seven nationa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specializing in foreign studies, including TUFUS. Making the most of the special features of each university, we aim to raise the level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our field even more. Since becoming president, I have wanted to visit HUFS. Every year we enjoy a steady exchange of students, indeed evidence of the ties of friendship between our two universities. Moreover, your university joined the Consortium of Asian and African Studies—an organization composed of TUFUS and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ingapore—in 2011 as the third representative of Asia. Recognizing the need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regional studies in today’s global society, TUFUS, HUFS, and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launched the East Asia Foreign Studies University Consortium also in 2011, with an eye to developing global human resources. With the installation of Dr. Kim In Chul as its new president, HUFS has taken another step toward its 100th anniversary. I would like to express my best wishes to you for ongoing growth and development, with the hope that our two universities will continue to walk hand in hand long into the future as fellow Asian universities that share the same vision and have “foreign studies” in their name. On March 11 this year, Japan marked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 regret to say that the stricken areas are still a long way from full reconstruction. In closing,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on behalf of the universities of Japan,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HUFS and the people of Korea for their support and many expressions of warm encouragement. Thank you.

##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을 지향하며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4년 개교 이래 진리·평화·창조의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양성해 온 지 오늘로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개 외국어학과로 첫 발을 내딛은 우리 대학은 역동적인 한국 현대사의 주역으로 소중한 인문학적 자산을 창출하며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외대의 졸업생들은 국제통상, 외교, 언론, 정부, 교육 및 학계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외대가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외대는 어문과 지역학에 기반한 고유가치를 심화하고, 인문, 상경, 사회, 법, 이공학을 아우르는 융복합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분교 통합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60년의 역사를 발판으로 100년 외대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학생 중심의 교육과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 및 봉사 활동을 통해 글로벌 융복합 대학을 향한 새로운 발전을 선도한다.
- 인본적인 가치와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한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의 주역이 된다.
-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여 외대 도약의 초석이 된다.
- 자랑스러운 모교가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동문이 단합하여 후원하고 자기발전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다

오늘 모든 외대 가족은 글로벌 60년을 지나 융복합 100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합니다.

2014년 4월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동문



# Anniversary

지난 4월 18일,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교직원, 동문,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간단하고 조촐하게 진행됐다. 당초 흥겨운 '외대인의 잔치'로 치를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공연들을 대부분 취소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마쳤다.

## 새로운 100년 다짐한 소통과 화합의 장

## 개교 60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문명재 교무처장은 국민의례를 마친 직후 식순에 없던 '묵념'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면과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참석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성수 기획조정처장은 '학교 연혁'을 보고했다. 학교 연혁 보고가 끝나자 이남주 이사장, 김인철 총장이 각각 기념사를 했고, 권순한 총동문회장, 성 김 주한미국대사, 히로타카 타테이시 동경외대 총장이 각각 단상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그 중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축하 메시지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외대를 찾아 강연했던 때를 언급하며 "방한 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만큼 열정적인 행사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 장소가 오바마홀로 명명된 데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 또한, 영어로 진행된 연설에서 "환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하던 중 '환갑'을 우리말로 발음해 눈길을 끌었다.



# 60<sup>th</sup>

## 모교의 발전된 모습, 동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되다

내·외빈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장기근속자와 우수교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상학(영어과 54), 윤윤수(정외과 66), 양인집(일본어과 76) 동문은 '외대상'을 받았다.

이어 학교가 발간한 <한국외대 60년사> 발간 보고가 진행됐다. 1년 6개월 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한국외대 60년사>는 학교가 걸어온 60년의 세월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 행사장 입구에서는 책자를 받아가는 동문들이 제법 많았다.

학교 발전상을 담은 개교 60주년 기념 홍보영상도 상영했다. 참석자들은 관람한 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100년 외대 비전 선포문'을 함께 낭독했다. 교직원 및 동문들은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긴 비전을 공유하며 새로운 100년을 다짐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만찬이 진행되기 전 휴식시간을 가진 동문들은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며 추억을 나누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소진출 동문(독일어과 57)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옛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니 선배로서 뿌듯하고,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모교가 이렇게 세계와 호흡하고 있고, 후배들은 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들이 외대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허철부 동문(영어과 57)도 "동문들이 좀더 결집해 학교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외국어를 통해 국력을 배양하자는 취지로 학교를 만든 설립 정신을 잊지 말고, 후배들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인재로 활동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국외국어대의 인기는 국내 최고였다"며, "나도 서울대 공대를 그만두고 외대 영어과를 선택했는데, 동기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 학교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은 2부 행사, '외대 한마당'

자유 시간을 겸한 '캠퍼스 투어'가 끝난 후 교직원과 동문들은 다시 오바마홀에 모였다. 아나운서 정은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 '외대 한마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준비된 테이블과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정은아 아나운서는 이남주 이사장, 김인철 총장, 권순환 총동문회장을 나란히 단상으로 이끌어 학교의 미래와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단합된 노력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의 대답은 토크쇼 형식의 독특한 진행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어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 이덕선 동문의 장학기금 100만 달러 기탁식이 열렸다. 이덕선 동문은 "외대에서 영어를 배워, 그 덕분에 미국에 가서 순탄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발전기금 기부가 그 빛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가 기부한 장학금의 수혜자였던 학생들은 동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한데 이어 실제로 '깜짝' 등장해 각각 꽃 한송이를 전달하며 포옹하는 '이벤트'를 마련해 이 동문을 감동시켰다. 끝으로 뉴욕동문회 전임회장인 임종부 동문, 배우 안성기 동문, 정은아 아나운서가 함께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것으로 1부 행사를 마쳤다.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한 저녁식사 겸 2부 행사는 아나운서 장웅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끝났지만 대부분의 동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모교의 60번째 생일에 함께 한 기쁨은 '앞으로 40년간 더 잘 가꾸어 100주년 잔치를 성대하게 치르자'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시종 경건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개교 60주년 기념식은, 외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새삼 확인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전 외대인들이 마음을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



# Anniversary

# 무한한 외대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0주년 기념 <외대상> 수상자 인터뷰



## 60년 전 외대에 들어온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영광

최상학(영어과 54)

한국외국어대 1회 입학생인 최상학 동문은 “외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죽는 날까지 외대 출신이라는 점을 큰 자랑으로 간직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동문은 1학년 때였던 1954년 한국 최초의 외국어신문인 <The Argus>를 창간한 주역이자, 외대 영문 표기를 지금의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로 개명하는 등 학교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1958년 졸업과 동시에 국가해외공보요원 공채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서 문화홍보외교관으로 주일한국대사관, 주미한국대사관, 주캐나다한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했다. 1964년 총동문회장을 지냈고, 현재 미주한국외국어대 총동문연합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평소 남다른 모교 사랑으로 미주지역 동문들의 결집을 주도했고, 외교관으로 국위를 선양하며 학교의 이름을 빛냈다. 외대 장학기금 모금에 앞장서 발전기금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

##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낼 것

윤윤수(정외과 65)

“훌륭한 동문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제게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모교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 동문은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기업가로 성장, 이탈리아의 글로벌 브랜드인 'FILA'를 인수하며 셀러리맨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이를 토대로 또다시 세계적 기업인 아티시네트를 인수해 또 한번 재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그는 헝가리를 통해 골프, 양궁, 컬링 등 다양한 종목에 지원하며 스포츠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 결과 동양인 최초로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 공동의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지난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공식 유니폼으로 선정돼 전 세계에 헝가리의 이름을 알렸다. 그는 ‘글로벌 경영을 통한 성공’이라는 점에서 외대 정신에 부합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청렴한 기업인으로서의 이미지로 외대인의 위상을 높였으며, 꾸준히 모교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을 인정받아 외대상을 수상했다.

## 모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 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을 것

양인집(일본어과 76)

“개인적으로 너무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상이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모교를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할 지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도교에 있는 동문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입니다.”

양인집 동문은 현재 하이트진로(주)해외사업총괄사장과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일본어과를 졸업한 그는 하이트진로(주)해외사업총괄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일본 수출시장의 확대에 기여했고, 2013년 3월부터는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돼 한일 양국 재계에서 모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외대 재동경동문회 회장직을 맡아 회원 확대와 동문간 친목도모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편, 동문회 차원에서 5천만원 장학기금을 약정해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재동경 동문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계를 품은 60년, 세계를 이끌 100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교 60주년

### 2014년 연중 기념행사

#### 봄학기

날짜	시간	행사명	장소
4월 17일	13:00	세계 동문 한마당 및 전야제	-
4월 18일	11:00	한일 외대 총장포럼	이덕선회의실
4월 18일	12:30	해외 동문 글로벌캠퍼스 방문	글로벌캠퍼스
4월 18일	16:00	개교 기념식	오바마홀
4월 18일	17:00	설립자 동상 제막식	본관 앞
4월 18일	19:00	외대인의 밤	오바마홀
4월 ~ 5월	-	네팔 다모다르 히말 루굴라 최초 등정	네팔 루굴라
5월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설립	-
5월	-	미네르바장학금(서울), 명수당장학금(글로벌) 캠페인 웹사이트 오픈	www.hufs.ac.kr
6월 12일	11:00	글로벌캠퍼스 신분관 준공식	글로벌캠퍼스

#### 가을학기

날짜	시간	행사명	장소
9월 1일 (개강)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 교양학부 운영	-
10월	20:00	기념 음악회	오바마홀
10월	-	외대 미전	본관
10월	-	연구소 연합 국제학술대회(국제지역연구소 주관)	국제회의실 등
10월	-	외대 정체성 학술대회(EU센터 주관)	국제회의실 등
11월	-	기부박물관 Hall of Donors 개관	역사박물관
11월	-	세계문자대회(언어연구소 주관)	오바마홀 등

\* 연중 동문명사 특강 실시 : 오바마 홀



# 안성기

## 끝없는 연기 변신으로 승부하는 '명품 배우'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살기를 꿈꾼다. 그런 점에서 배우 안성기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새로운 작품을 받으면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고, 영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기에, 그는 '국민배우'보다 오랫동안 '현역배우'로 불리기를 원한다. 평생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영화인'의 외길을 걷고 있는 그에게 연기란, 삶 그 자체다.

우리 영화사에서 '배우 안성기'는 '큰 산'이다. 이른바 '판따라'로 불리던 '배우'의 이미지를 바꾸었고,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돋보이는 연기로 한국 영화의 수준을 끌어올렸다. 몸에 밴 반듯함으로 영화계 선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오직 영화에만 몰두하며 사는 그에게 대중은 '국민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었다.

알려진대로 그는 아역배우 출신이다. 여섯 살 때인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했다. 김 감독과 그의 부친은 친구 사이로, 마땅한 아역을 구하기 어려워 그를 작품에 출연시켰다고 한다. 연기를 곧잘 한 덕분에 김기영 감독은 2년 뒤인 1959년, 또다른 영화 <10대의 반항>에 그를 캐스팅했다. 당시 그는 이 영화로 샌프란시스코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아역상)을 수상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1968년 이성구 감독의 <젊은 느티나무>를 끝으로 영화계를 떠났다. 그는 "고등학생이 되니 말을 만한 배역이 별로 없었고, 워낙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해 또래 친구들처럼 공부도 하고 놀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고 한다. "어렸을 때는 잘 한다는 칭찬에 떠밀려 연기를 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매력을 그때는 몰랐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영화와 멀어졌어요."



## 베트남 생활의 꿈 접고 영화계로 돌아가다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돌아온 그는 학업에 매진해 한국외국어대 베트남어과에 입학했다. 베트남은 당시 한창 전쟁 중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베트남에 가서 살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 준비를 위해 ROTC 장교로도 복무했다. 그러나 전역을 앞두고 베트남전이 끝나면서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게다가 베트남어 전공자를 뽑는 기업이 없어 학과 수석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실업자'로 살아야 했다. 오랜 방향을 거쳐 그가 다시 찾은 곳은 영화 현장이었다.

단역이 주어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영화를 찍던 어느 날, 우연히 이장호 감독을 만났다. 마침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던 이 감독은 그에게 시골에서 상경한 중국집 배달원 역할을 맡겼다. 상대역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 유지인이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에 출연해 백상예술상 남자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안성기의 시대'를 열었다. 이후 배창호 감독과 호흡을 맞추며 1980~90년대 영화계를 휩쓸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살미도> <라디오스타> <부러진 화살> 등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여 '믿고 보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이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그는 최근까지 기획사도, 매니저도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왔다. 이 점을 불편해하는 후배들이 많아 지금은 개인 매니저를 한 명 두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영화 외에는 다른 데 한눈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영화였기 때문에 사업이나 혹은 영화를 통해 다른 것을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순수하게 배우로서 승부하겠다, 영화를 하며 먹고 살고, 또 인정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며 살았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가장 근본인 영화배우로서의 자세, 마음가짐은 흔들리지 말자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는 후배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행복한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저는 영화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신경쓰지 않고 배우로만 살고 있는 거죠. 예능에 나가는 것, 혹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게 즐거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특강이나 인터뷰 요청을 종종 받는데, 저는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강연을 즐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재미있게 잘 하고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웃을 입을 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 모교의 발전상,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

'연기 외에 기쁘고 행복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유니세프 친선대사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직을 꼽았다.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맡은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고, 영화제 집행위원 일도 11년째 접어든다. 유니세프 친선대사인 그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개발국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실정과 함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린다. 영화제의 경우 이제 막 영화관에 뛰어든 젊은 영화인들이 만든 작품을 함께 즐기고, 그들과 소통하고, 세계 영화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워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모교 소식지와 인터뷰에 흔쾌히 응한 그는 지면을 통해 60주년 축하인사를 건네며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공지에 대해 언급했다.

"외대는 항상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외대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고 정말 뿌듯했어요. 또,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도 계속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걸 보면 외형만 커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동문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최근 새 영화 <트로트>(감독 김기훈, 제작 나래픽처스)에 황학동 책방 주인으로 캐스팅된 그는 곧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영원한 현역배우로 남고 싶다'는 그의 소망처럼, 스크린에서 오래오래 그의 명품 연기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폴란드문화훈장 받은  
최성은 교수(폴란드어과 90)  
이지원 박사(폴란드어과 92)

# 최 성 은 지 원

## 한국과 폴란드, 양국을 잇는 ‘문화 외교관’

지난 3월, 폴란드어과에는  
겹경사가 있었다. 학과장인  
최성은 교수와 이지원 박사가  
나란히 폴란드문화훈장을  
받은 것. 각각 외대 폴란드어과  
4회, 6회 졸업생인 두 사람은  
그동안 꾸준한 번역 작업을  
통해 양국의 문화 교류에  
기여해왔다.



폴란드 문화·국가유산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리아 아티스 문화공헌 훈장’은 폴란드의 문화나 문화유산을 수호하는데 기여했거나 성과를 이룬 개인이나 기관에 수여한다. 시상식은 3월에 있었지만 수훈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가을. 최성은 교수가 은메달을, 이지원 박사는 동메달을 받았다. 수상 소감을 묻자 최 교수는 “번역은 혼자 하는 외로운 작업인데 폴란드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상까지 준 데 감동받았다”며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성은 교수는 그동안 폴란드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며 헨릭 센케비치의 <쿠오바디스>, 시인 쉘보르스카의 <끝과 시작>, 카푸친스키의 <헤로도투스와의 여행>을 비롯해 문학 작품 20여 편을 번역했다.

“폴란드 문학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걸출한 작품들이 많아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도 네 명이나 배출했어요. 폴란드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주류언어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죠.”(최성은 교수)

그럼에도 폴란드어는 전문번역가가 거의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나기 어려웠다. 190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센케비치의 <쿠오바디스>의 경우 국내 51개의 번역본이 나와 있지만 폴란드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일제시대 때부터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한 터라 일본어, 영어로 번역된 것을 중역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중국어판을 참고해 만든 일본어판을 번역한 삼중역도 있었다. 그가 <쿠오바디스>를 새롭게 선보인 2005년은 마침 센케비치의 노벨상 수상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주한 폴란드대사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닮은 데가 많아요. 독일과 러시아,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외침을 많이 겪었어요. 123년 동안 나라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학이 구심점이 되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려웠던 환경이 문학적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든 셈이죠. 이런 유사성 때문인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작품을 많이 발견해요. 한국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요.”

## 한국 문학을 폴란드에 소개하는 작업도 확대할 것

최성은 교수가 폴란드의 고전문학이나 전문학술서를 주로 번역하는 반면 이지원 박사는 어린이 그림책 전문가다. 특히 그는 번역보다 폴란드 작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폴란드는 체제 전환 이후 출판 시장이 급락하면서 재능있는 작가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이것을 안타까워 한 그는 자신이 직접 작가를 발굴해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이 다시 외국에 번역돼 나가는 방식으로 세계 출판계에 폴란드 작가들을 알리고 있다.

2013년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에서 최고상인 라가치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가 대표적인 사례. 이보나의 작품 <눈>은 폴란드가 아닌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먼저 출간되었고, 세계적인 도서전에서의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폴란드어과를 마치고 폴란드 정부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예술사를 전공했다. 전시기획자로도 활동하며 ‘한국인이 본 폴란드 사진전’ ‘폴란드 디자인전’ 등을 기획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폴란드에서 유학하면서 쌓은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두 나라 모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학 시절부터 친했던 두 사람은 지금도 서로를 가장 존경하는 선배·후배로 꼽는다. 공동 번역으로 노벨상 후보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는 아담 자가예프스키의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를 펴내기도 했다. 20여 년 세월을 함께 한 든든한 동료라기에, 이들은 번역이라는 외로운 길을 즐겁게 걷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 문학을 폴란드에 알리는 작업을 확대해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싶다”는 두 사람. 이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양국 간 문화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날 날을 기대해본다.

## Industrial and Management Engineering

### ‘2013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수 부문’ 전국 1위, 전임교원 1인당 국제논문 수 1위 산업경영공학과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가 전임교원 1인당 국제저명학술지(SCI급·SCOPUS) 게재 논문 수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국제 논문 수에서도 전임교원 1인당 1.33편으로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산업경영공학과는 취업률에서도 2010~2013년까지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83.9%를 기록해 글로벌캠퍼스 취업률 1위, 수도권 내 대학 산업공학 관련 22개 학과 중 3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해마다 실시되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꾸준히 학과 평가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뒤에는 ‘글로벌 산업시스템 및 IT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전공 지식과 실무, 외국어 교육에 집중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다. 산업체 인턴십 및 멘토링 제도, 현장교육학점제, 산학협력중심의 졸업프로젝트 등의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 팀워크 및 리더십을 길러주고, 한국외국어대의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외국어 구사 능력을 키워준다. 특히 4학년 1학기 때 실시하는 졸업 프로젝트는 한국외국어대 산업경영공학과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다.

3학년 학생들은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곧바로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4~5명이 팀을 짜서 직접 기업을 방문해 생산 및 재고 관리, Logistic, 공급망 및 유통망 등 가치사슬상의 제반 문제 그리고 신규 서비스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기업에 필요한 현안을 찾아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 각 프로젝트마다 지도교수가 배정되고, 학생들은 매주 지도교수와 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내용을 수정해가며 한 학기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은 교내외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출품한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실제 그 기업의 직원이 된 것처럼 몰입한다. 졸업생들은 “때로는 직원의 입장에서 때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취업 후 현장에서 실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불협화음, 이견 등을 조율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도 졸업 프로젝트의 장점 중 하나다.

산업경영공학과는 산업공학과에서 출발해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등으로 이름을 달리 하며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과거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이었던 제조업 대신 서비스업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서 생산 관리보다 매니지먼트의 비중이 커지게 된 데 따른 변화다.

졸업생들은 제조업, 금융, 통신·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 직무로 분류하면 생산·품질관리 쪽이 가장 많고, 제품 개발·기획·컨설팅 분야로도 진출하는 등 전 산업군에 걸쳐 폭넓게 퍼져 있다.

이처럼 이미 많은 인재를 배출한 산업경영공학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의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인 산업경영전문가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학생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산업경영공학과 김문수 학과장

####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



“전국에 있는 50여 개 대학 중 1위를 했다고 하니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동안 학생들이 높은 취업률로 학과의 이름을 빛냈는데, 이번엔 교수들이 연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내 뿌듯합니다.” 김문수 학과장은 “우리 과는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학과라 다른 학문에 비해서 역동적”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다 아우르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고 평했다. “산업경영공학은 ‘제조’와 ‘서비스’라는 두 축을 기본으로 ‘시스템’과 ‘최적화’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성을 확대하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요즘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분야가 넓어져 서비스공학과 같은 과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공학이 융합된 학문이지요. 그래서 최근엔 산업공학이라는 이름 대신 ‘융합’을 넣어 학과 이름을 바꾸는 대학도 있어요.” 그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경우 졸업 프로젝트를 더욱 전문화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취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HUFS Proseminar

### 모교에 대한 자부심 심어줄, 신입생 대상 교양 강좌 HUFS 프로세미나



한국외국어대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강의 ‘HUFS 프로세미나’를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특강에는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이 강사로 초청돼 후배들과 만난다.

그동안 사회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화려한 스펙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뿐 아니라 인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재가 각광받는다. 최근 국내 대학들이 입학생 전원을 일정 기간 동안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율과 배려를 가르치는 RC(Residence College)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RC 제도는 정규 교과 과정 이외의 활동을 통해 소통과 배려, 인성과 리더십 등을 익히게 하자는 취지로,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 프린스턴대,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기획한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은 “RC 제도의 본질은 결국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외국어 특성화 대학에서 시작해 글로벌한 종합 대학으로 성장한 지금, 우리도 이제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전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특강 형식으로 동문 초청 강의를 진행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의를 통해 외대인의 정신은 무엇이고, 외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저희 동문들은 주로 국제통상, 언론, 외교 분야에 진출해 요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리더로 우뚝 선 분들도 많고요. 그들의 모습이 후배들에게는 그 자체로 롤 모델이자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강사진도 이 점을 고려해 구성했습니다.”

#### 선배들의 열정적인 삶에서 얻는 귀한 교훈

3월 5일에 진행된 첫 강의를 김시홍 처장이 주관했다. 당시 그는 막 외대인으로 첫 발을 디딘 신입생들에게 외대의 역사와 외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가의 의미와 작사가인 이은상 시인이 가사에 담은 외대인의 정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영어과 75학번인 방 장관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주제로 강의하며 ‘꿈은 간절해야 하고, 인생의 가치가 스며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토익점수·학벌 등 스펙에 목매기 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지금까지는 다수가 선두 경쟁을 해왔다. 잘 닦인 길을 가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학벌, 스펙 보다는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인철 총장(행정 75), 권순한 총동문회장(스페인어 63),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정외 79), 최명호 동아일보 대표이사(노어 69), 박진 석좌교수(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가 강단에 섰고, 5~6월에는 서인선 검사(법학 92),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노어 73),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정외 66),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 국대사 등의 강의를 예정돼 있다.

김시홍 처장은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강학생 1800명이 쓴 내용을 모두 읽었다”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데 대한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배들의 열정적인 삶에 감동받았다는 의견이 많아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이 과정이 외대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HUFS Proseminar 강의 일정표

3월 5일 오리엔테이션 김시홍 학생복지처장	4월 30일 박진 석좌교수(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3월 12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영어 75)	5월 7일 서인선 검사(헌법재판소, 법학 92)
3월 19일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행정 76)	5월 14일 민동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노어 73)
3월 26일 권순한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소이상사 회장, 스페인어 63)	5월 21일 경력개발세미나(고시반 순례)
4월 2일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정외 79)	5월 28일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정외 66)
4월 9일 최명호 동아일보 대표이사(노어 69)	6월 4일 결론 : 외대와 외대인
4월 16일 이덕선 미주동문연합회 이사장(독어 58)	6월 11일 자율학습
4월 23일 자율학습	6월 18일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 Language & Diplomacy

# LD

### 국내 최초 신설된 외교·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LD(Language & Diplomacy)학부



외교관, 국제기구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외대가 LD(Language & Diplomacy)학부를 신설, 올해 첫 신입생을 맞았다. LD(Language&Diplomacy)학부는 국내 최초인 동시에 유일한 외교·국제 전문가 양성 과정.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 외교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국외대의 학문적 특성과 외교부 내의 강력한 동문 파워, 국내 최고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프로그램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교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던 외무고시가 지난해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외교관 후보자'를 선발해 교육하는 국립외교원이 출범했다. 외무고시를 대체했다고는 하지만 후보생 자격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1차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2차시험인 전공평가(국제정치학·국제법·경제학)와 학제통합 논술시험,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도 한국어와 영어, 제2외국어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고시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차이라면 학제통합 논술이 신설되고 외국어가 자격요건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외대는 LD(Language & Diplomacy)학부를 신설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아너스쿨(Honour School), 프랑스 소르본대학의 그랑제콜(Grandes Ecoles)처럼 최고의 학생들을 모아 최고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혜택도 파격적이다. LD학부 입학생에게는 4년 전액 장학금(수능 국어, 영어, 수학 백분위 합 290 이상 또는 3개 영역 모두 1등급)이 제공된다.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나 국제지역대학원을 진학할 경우에는 석사과정까지 장학금이 수여된다. 또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지원 시 LD학부 졸업생에 한해 일부 시험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첫 학기 기숙사 우선 입사(기숙비 면제)가 약속되며, LD학부 전용 면학실도 제공된다. LD학부 학생들의 경우 한국외대에서 진행되는 해외교류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이중전공 우선 배정, 학사, 경력, 진로 밀착 관리 등 특별한 학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탄탄한 프로그램, 파격적인 혜택

교육 과정도 탄탄하다. 외교통상부와 국제기구 고위 공직자 출신의 교수진을 확보해 외교통상·국제관계에 대한 실무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D학부가 '외교관 양성 사관학교'를 표방한 만큼 국립외교원 진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외무고시 출제 교수나 대사 초청 특강, 외교부에서 활약하는 동문들과 입학생 간 멘토링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도 주어진다. 입학생은 LD학부 재학기간 중 국가고시에 1회 이상 응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국립외교원 시험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LD 학부는 첫 신입생을 선발한 이번 입시에서 한국외대 나군 모집단위 중 최고 경쟁률인 5.64대 1을 기록했다. 유기환 입학처장은 "LD학부의 신설은 우리 대학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입시 미봉책이 아닌 고급실무 전문교육을 위해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고위 공직자 출신 등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고의 외교관을 양성해온 본교의 역량을 집중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외교의 꽃을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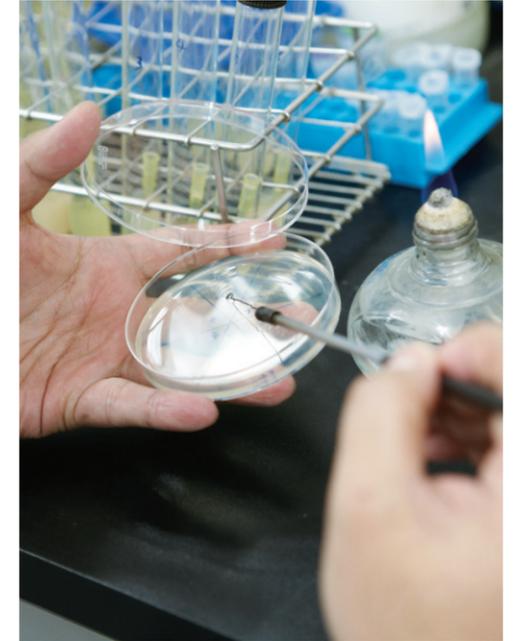


Protein Research Center for Bio-industry

# PRCB

차세대 바이오산업을 이끌  
'산업용 단백질' 연구의 핵심 기지  
바이오산업용단백질연구센터

2007년 6월 문을 연  
한국외국대학교  
바이오산업용단백질연구센터는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Gye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다.  
GRRC는 경기도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산·관·학 협력 사업이다.  
총 9개년의 지원 기간 중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연구센터는 그동안  
신기술 개발과 10여 건의 특허  
등록, 40여 편의 SCI급 논문 발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GRRC는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자원과 경기도의 중점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초과학기술의 진흥과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바이오기업 중 37%를 유치하고 있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추로 꼽힌다. 경기도는 바이오벤처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기능성 바이오산업용 단백질제제 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인프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한국외국어대를 GRRC로 선정했다.

특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단백질 기술 개발은 경기도가 선정한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요소. 바이오산업용단백질연구센터(센터장 하현준)는 그동안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소재 기업,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후원으로 고기능성 단백질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했다. 3년씩 3차에 걸쳐 총 9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3차 년도를 지나고 있다.

하현준 센터장은 "우리 학교가 경기도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며, "도(道)의 연구비를 받아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GRRC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할 것"이라며, "이런 보람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연구자들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문을 연 지 벌써 7년째, 각 연구실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로 된 항생물질·항바이러스물질의 발견이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사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항생제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진들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도 찾아냈다. 그것을 역이용해 '위해 세균'을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화학과 교수인 하현준 센터장을 비롯해 권혁민(생명공학과), 김용애(화학과), 명희준(생명공학과), 박중찬(생명공학과), 이현환(생명공학과), 조재창(환경학과), 허성(화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 갖추고 공동 연구 진행**

연구센터의 업무는 공동 연구,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 지원, 사업화 지원 등으로 나뉜다. '고부가가치의 고기능성 단백질을 개발하여 산업화한다'는 목표 아래 산업공정용 단백질 개발, 감염제어용 단백질 개발, 나노입자를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 식중독세균 고속 검출용 키트 개발이라는 중심 연구 과제를 운영한다. 이와 별도로 참여 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특별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기본 과제를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략에 따라 세부 과제로 나누어 연구 단계별로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미생물 균주 발굴 및 단백질 기능 향상 기술, 단백질 소재 대량 생산을 위한 발효 기술, 펩타이드 합성 및 구조 분석, 비천연 아미노산 인입기술, 항감염성 펩타이드, 나노 입자를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 미생물 탐지기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제, 제약, 식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효소개발과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제어용 단백질을 산업체와 연계해 개발 중이다. 화학과 교수인 하현준 센터장을 비롯해 권혁민(생명공학과), 김용애(화학과), 명희준(생명공학과), 박중찬(생명공학과), 이현환(생명공학과), 조재창(환경학과), 허성(화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생 연구에 참여,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의 산실**

총 9개년간의 연구 기간 중 이제 2년을 남겨 놓고 있는 지금, 하현준 센터장에게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연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센터가 구축한 연구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이다. 그는 "연구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연구센터는 그동안 받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 관련 기자재 구입에 썼다. 센터 안에는 수천 만원에서 2~3억에 이르는 고가의 기기들이 많다. 이 귀한 장비들을 GRRC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센터 운영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모두 석·박사 과정생들이에요. 이런 연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소정의 연구비도 받으니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요. 이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저희 연구센터가 지역 안에서, 업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바이오 산업과 한국외대의 우수한 연구 역량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용단백질연구센터. 연구센터의 활동은 경기도를 넘어,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Trend & Culture

세기는 지금  
이슬람 금융의 핵심,  
수쿠크를 주목하라

Art&Culture  
영화 <그을린 사랑>을 통해 바라본  
그리스신화 <오이디푸스이야기>

동문작가와의 만남  
<사상으로서의 조선문학> 저자  
이혜진(국문학박사, 철학과 93)



서정민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amirseo@hufs.ac.kr



# 이슬람 금융의 핵심,

# 수쿠크를 주목하라

2013년 10월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억 파운드(약 3,500억 원)의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영국 재무부는 HSBC를 주간사로 지정했다. 금융허브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슬람금융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이슬람국가들을 제외하고도 호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도 수쿠크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수쿠크에 대한 세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적 금융허브가 수쿠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10여 년간의 고유가로 중동의 오일머니가 그 위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의 국부펀드 규모만 해도 약2조 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국부펀드 규모 상위 10개 국가 중 4개가 중동에 있다. 1,000억 달러 이상 운영하는 소위 슈퍼 세븐(Super Seven) 중 4개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카타르 국부펀드다. 자금이 넘쳐나면서 이슬람금융 중 수쿠크가 급성장했다. 현재 수쿠크의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에 이른다.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중동 지역의 탄탄한 재정 지출과 경제 성장, 안전한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겹치면서 올해 수쿠크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수표의 어원, 수쿠크

수쿠크는 이슬람법에 따르는 채권이다. 이슬람법 샤리아(Shariah)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기생행위 혹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금융 기법이 바로 수쿠크 채권이다. 그러나 현대적 일반 채권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 현재 통용되는 일반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거액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그러나 수쿠크는 단순한 차용증서가 아니라 투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이슬람법에 반하는 술, 돼지고기, 도박 등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수쿠크는 이미 중세 이슬람 국가에서도 발행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법을 우회하면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기법이다.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주면 이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끼어 넣어 투자와 이윤분배 개념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 거래에서 등장한 계약 혹은 계약서를 이슬람법에서 사크(Sakk)라고 칭한다. 수쿠크는 사크의 복수다. 사크의 페르시아어 발음이 체크(Chek)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표(Cheque)의 어원이다.

## 신축성이 장점인 수쿠크

수쿠크는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바레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슬람금융기관회계감사기구(AAOIFI)가 분류하고 있는 수쿠크의 종류만 해도 14가지다. 이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일 뿐이다. 1990년 말레이시아의 다국적기업 셸(Shell)사가 처음으로 현대적 수쿠크 기법을 개발한 이래, 수쿠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것들 중 대표적인 수쿠크는 실물자산매매 방식인 무라바하(Murabahah), 리스방식 이자라(Ijarah), 출자형식인 무샤라카(Musharakah), 신탁금융인 무다라바(Mudharabah) 등이다. 거래형태별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자라 수쿠크다. 이자라 수쿠크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V)에 임대한 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실물자산을 담보로 거래하는 것이다. 원금은 실물자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매입하게 만들거나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다른 한가지의 거래방식은 무라바하 수쿠크다. 일종의 외상거래다. 증권 인수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차입자에게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주로 상품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 간과할 수 없는 블루오션

금융 선진국들이 수쿠크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중동의 막대한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중동 국가가 미국과 유럽에 투자한 금액이 각각 5,600억 그리고 2,700억 달러다. 여기에 금융 시장이 글로벌화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것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나타났듯이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의 다변화에 나선 것이고 그 주요 대상이 오일머니다. 한때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고통을 겪었던 말레이시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슬람금융 허브를 기지로 내 걸고 현재 전 세계 수쿠크 발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우리 정부도 나서고 있다. 자금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중동진출 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수쿠크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 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쿠크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특수목적회사라는 '법인'이 등장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아직 법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크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수쿠크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주는 것은 이슬람 투자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자금을 도입하는 국가에는 '샤리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또 이 기구가 이슬람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 이슬람 금융은 수익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테러단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도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 석유 및 가스를 바탕으로 한 중동경제와 이슬람금융은 급성장할 것이다. 블루오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파란바다'에서 헤엄치기 싫다면, 민물에서만 놀아야 한다.

그리스 신화로 보는 영화

영화 <그을린 사랑>을 통해 바라 본 그리스신화 속 오이디푸스 이야기

# 세상에 함께 있는 것보다

#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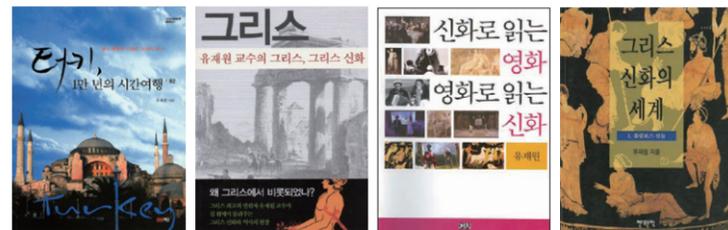
캐나다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 <그을린 사랑>은 '레바논 내전'이라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2010년 제작된 작품이다. 이 영화는 그 어느 작품보다 그리스 신화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삶과 맞닿아 있다. 자신들을 둘러싼 가혹한 삶의 운명을 마주하며, 신화 속 이야기와 닮은 듯 다르게 펼쳐지는 영화 <그을린 사랑>을 통해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만나본다.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유재원 교수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우리대학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타키 1만년의 시간여행 1, 2』, 『그리스』, 『신화로 읽는 영화 영화로 읽는 신화』, 『그리스 신화의 세계 1, 2』 등이 있다.



가장 비장한 운명의 영웅, 오이디푸스 왕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테바이의 왕 라이오스는 아들이 태어나자 자신의 목동에게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 목동은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웃 나라 코린토스 왕의 목동에게 준다.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델포이로 가서 자신의 부모가 정말 친부인가에 대해 신탁을 물었다. 신탁의 대답은 엉뚱하게도 그가 자신의 친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리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운명을 피하기 위해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반대편에 있는 테바이 쪽으로 내려갔다. 삼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무리의 일행과 싸움을 벌인 오이디푸스는 본의 아니게 그의 생부인 라이오스를 살해하게 된다. 이어서 그 즈음 테바이로 가는 길목에서 수수께끼를 내어 이를 못 풀면 사람을 잡아먹던 괴물 스피נק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오이디푸스는 폴리스를 구한 영웅으로 테바이에 입성한다. 그리고 그 상으로 과부가 된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왕이 된 뒤에 두 아들,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린다. 이렇게 하여 그에 대한 운명의 저주는 완성된다.

20여 년이 흐른 뒤, 테바이에 까닭 모를 역병이 돌면서 오이디푸스의 행복은 끝이 난다. 델포이의 신탁은 이 역병이 누군가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기 때문에 신들이 내린 저주임을 알려 준다. 오이디푸스는 정의감에 불타 이런 파렴치한 악당을 잡아내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수사가 진전되면서 오이디푸스의 비밀이 차츰 드러난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절망 속에서 자살하고, 오이디푸스 역시 신들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다. 신들이 자신에게 내린 저주 받은 운명을 피하려는 오이디푸스의 모든 노력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저주에 빠져드는 우매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한 여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위대한 여정, 영화 <그을린 사랑>

쌍둥이 남매인 잔느와 시몽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생부와,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 형제를 찾아 자신이 남긴 편지를 전해 줄 것과 편지를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어머니 나왈의 유언을 전해 듣고 혼란에 빠진다.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 중동으로 떠난 남매는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 마론과 그리스도교도 소녀 나왈은 이슬람 교도인 팔레스타인 난민 남자아이를 사랑하여 임신한다. 이런 나왈의 행동을 집안의 수치라고 여긴 오빠들은 남자아이를 죽이고, 나왈은 출산하는 순간 아기를 빼앗긴다. 이후 그녀 삶의 유일한 목적은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왜 쏘는지 모르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며, 보복이 보복이 되따르는 잔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나왈은 이 비극을 끝내리라 마음 먹고 기독교 민병대 우두머리를 암살한다. 체포된 그녀는 감옥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랄한 고문은 여자를 강간하여 임신하게 하고는 그 아이를 빼앗아 강물에 던지는 것이었다. 나왈 역시 아무 타락이란 고문 기술자에게 강간을 당해 임신하고는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 이 기구한 운명의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잔느와 시몽이다.

### 21세기에 되살아난 신화 같은 이야기

생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신화를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레바논 내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그을린 사랑>은 현실이 신화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는 저주 받은 운명을 겪고 절없는 이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쓴 맛을 다 경험한 어머니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훨씬 더 충격적이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오이디푸스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곧바로 행동하는 성급한 젊은이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 싸움에서 무례하게 구는 생부 라이오스를 우발적으로 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총명함으로 스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그 공로로 테바이 시민들에 의해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왕위를 차지한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은 그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 행복했다. 나왈 역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

각하는 일을 과감하게 행하는 행동파다. 불행한 사랑으로 얻은 아기를 빼앗긴 뒤 그녀는 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 부족의 금기를 깨고 여자로서 글자를 깨우치고 고등교육까지 받아 주변의 부러움을 산다. 그리고 나왈은 반인류적인 잔혹한 범행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는 기독교 민병대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의 총명함을 미끼로 접근하여 암살한다. 자신이 속한 종교의 지도자를 살해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에 맞먹는 반인륜적 행위다. 그리고 나왈의 살인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영웅이 아닌 범죄자로 체포된 나왈은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잔혹한 고문 과정에서 고문 전문가가 된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쌍둥이 자매를 낳는다. 두 이야기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기구한 운명으로 본의 아니게 근친상간을 하지만 그 과정은 이렇게 사뭇 다르다.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테에게 얻은 자식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 축복이었지만 나왈에게 아이들은 처음부터 저주의 상징물들이었다. 오이디푸스에게는 비극을 피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테이레시아스가 그에게 모든 걸 버리고 조용히 테바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사태를 미리 깨달은 이오카스테가 이제 충분하니 수사를 그만 두라고 했을 때, 그 충고를 신들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최악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은 똑똑하다는 자만심과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사람이라는 공명심에 불타 20여 년 전의 살인 사건의 비밀을 고집스럽게 끝까지 밝히려 들었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빠져 죽어야 할 연약한 인간으로서 신들에게 도전하는 오만을 부리다가 끝내 파멸한다. 마지막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그런 운명을 내린 신들을 저주하며 그렇게 명백한 사실을 보지 못한 자신 눈을 용서할 수 없다며 스스로 눈을 찢러 장님이 된다. 이것이 신들에 대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항의와 저항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이루어졌을 때마저



세계 유수 영화제의 주요 영화상을 휩쓴 <그을린 사랑>은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나선 쌍둥이 남매의 여정과 그 여정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통해 전쟁과 역사가 개인에게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압도적인 연출력과 연기로 그려낸 작품이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결정한 일에 대해 조금의 뉘우침이 없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어머니가 아들보다 먼저 근친상간 사실을 알아차린다. 친절하고 유능하고 게다가 아들뻘 되는 젊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남편이 바로 자기가 죽이라고 갖다 버린 자식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오카스테는 자기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지난 20년이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녀는 행복과 저주의 현상인 침실로 조용히 몰려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반면 나왈은 저주스러운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었을 때 일단 깊은 침묵에 잠긴다. 모진 운명을 깨달았을 때 이오카스테는 자결했고 오이디푸스는 현실을 저주했지만 나왈은 오히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진다. 그리고 죽음을 맞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아버지 형을 찾으라는 유언을 남긴다. 자신이 무덤으로 안고 가면 그만일 수도 있는 엄청난 비극을 아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 무지에서 오는 거짓된 행복보다 낫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 권리가 있다. 평화롭던 테바이에 역병이 돌게 된 까닭은 오이디푸스의 반인륜적 범죄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죄악은 단순히 그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그런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테바이의 위기는 오염된 사람인 오이디푸스가 떠남으로써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테바이는 다시 정화되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오이디푸스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와는 반대로 나왈의 불행은 그녀가 태어난 사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970년대 레바논은 갈등과 불화로 가득 차 있어 반목과 질시, 온갖 차별과 피가 피를 부르는 폭력과 보복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런 경직되고 편협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남녀의 순수한 사랑은 살아남을 수 없었다. 나왈은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배고 그와 한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완고한 그녀의 가족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아이를 빼앗긴 나왈은 평생 그 아이를 찾아 헤메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피비린내 나는 증오에 휩싸여 미친 듯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야만스러운 복수와 전쟁이었다. 사회의 불행이 나왈이란 연약한 여인의 운명을 철저히 짓밟아 버렸다.

### 그을린 사랑: 오이디푸스여, 침묵하라!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는 끝에 가서 결국 신들과 화해하지만 나왈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스러운 비밀을 안고 살다가 쓸쓸히 죽는다. 나왈이 당하는 불행은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기에 더 끔찍하다. 우리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지막 편지에서 나왈은 니하드에게 침묵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니하드의 아버지 와합의 말을 전한다. 함께 있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그 아름다운 일은 침묵 저편에서만 가능하다고……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그리고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몽과 잔느는 어머니의 그 침묵을 듣는다. 우리도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상으로서의 조선문학〉 저자

이혜진(국문학박사, 철학과 93) 동문을 만나다

# 사상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지 말기의 조선 문학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부터 태평양전쟁이 끝난 1945년까지의 기간은 식민지 조선인에게 가장 힘겨운 시기였다.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제의 만행은 극에 달했고, 이 시기 문인들은 ‘문학’을 통해 일본의 전쟁에 복무해야 했다. 국문학자인 이혜진 박사는 이들을 무조건 ‘친일파’로 분류하는 현실에 물음표를 던진다. ‘당시의 한국문학은 사상의 영역이었고, 그 지점에서 한국문학의 윤리를 자문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와 관련한 자신의 연구 논문을 묶어 지난해 10월 〈사상으로서의 조선문학〉(소명출판)을 펴냈다.



식민지 말기의 한국문학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문학의 존립 양태와 지식인의 윤리 문제를 중요한 화두로 꺼내고 있다. 책의 표제를 ‘사상으로서의 조선문학’이라 내걸고, ‘진시제제기 한국문학의 윤리’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표제에서 사용한 ‘조선문학’이란 당시 국적을 상실한 조선에 대해 일본문학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문학을 지칭했던 당대의 용어를 그대로 썼다. 부제에 사용한 ‘한국문학’은 사후의 관점에서 당대의 조선문학을 정치적·사상적 혹은 국제관계적 의미망에서 조망한다는 차원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혜진 박사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관여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자리를 잡은 그는 첫 업무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할 친일 문인을 찾아내는 일을 맡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친일 문인이라고 하면 일본어로, 일본에 충성을 바치는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친일 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일본어로 쓰기는 했지만 내용 안에서 일본어를 교묘하게 훼손한 경우도 있고, 식민지 조국을 옹호하는 내용도 있어요. 일제의 식민통치가 극악무도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들을 무조건 친일로 분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친일 문인을 찾는 작업이 거꾸로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것을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겠다고 결심한 그는 3년간 일한 민족문제연구소에 사직서를 낸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이후 ‘전시(戰時) 일본 사상사’ 권위자인 요네타니 교수가 있는 도쿄의 국어대학에서 공부했다.

“이 분야는 균형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하면 위험하죠. 당시 일본 내 상황, 사상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최재서 같은, 당대 문인들의 미발표 작품을 찾는 성과도 거두었지요. 최재서는 영문학

자이자 문학평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뜻밖에도 일본어로 쓴 단편 소설을 다섯 편이나 찾았어요. 기쁘고 신기한 마음에 곧바로 번역해 2012년에 〈최재서 일본어 소설집〉이라는 책을 냈어요.”

## 인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연구

학부 시절 철학을 전공한 그는 작가의 꿈을 안고 국문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다. ‘국문학과 출신이 아니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업 준비며 과제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 창작이 아니라 연구에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으로 이어졌다.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세명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철학 전공자로서,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방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엄밀히 보면 지금 그의 연구도 역사철학의 범주에 있다.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으로 당대 최고 엘리트로 꼽히던 영문학자였지만 영문학자들이 관심 갖지 않는 최재서를 연구하고, 식민지 말기의 한국문학을 연구하느라 그의 관심사는 영문학, 국문학, 일문학, 철학 등 인문학 전반으로 뻗어 있다.

“기왕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남들이 어려워하는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는 이혜진 박사. 그는 “지금 하는 이 작업이 재미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스스로 미련하다고 느낄 정도로 연구는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지만 그는 믿는다. 언젠가 이 연구에 평생을 바치기를 잘 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할 날이 올 것이라고.



##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롯데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3월 11일(화) 오후 2시, 서울캠퍼스 본관 109호에서 열렸다.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서울)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롯데장학재단을 대표하여 우리대학 동문인 이홍균(중국어과 75) 전무와 이상하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에 설립됐으며, '가난을 이유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뜻을 반영해 2013학년도부터 우리대학에 미래인재장학생, 희망장학생을 선별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직원 정년퇴임 기념 표창장 및 공로패 전달식



대학본부는 3월 7일(금), 우리대학에서 30여 년을 봉직하고 정년 퇴임하는 직원들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전달하고 대학의 공로패를 수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2월 28일자로 정년 퇴임하는 직원은 학사종합지원센터 조수봉 부장, 시설관리팀 오성진 차장, 도서관 학술정보팀 김경애 과장, 김경희 과장으로 총 네 명이다. 이번 정년퇴임자들은 장기간 대학교육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장과 총장의 공로패를 수여했다.

## '아제르바이잔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개막



'아제르바이잔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이 3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3일간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전은 아제르바이잔-한국 문화 교류 협회(SEBA)와 유럽 아제르바이잔 연합(TEAS)이 후원하고,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가 공동 주최하였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개막식에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및 터키 대사관 측을 비롯해 Dulat Bakishev 카자흐스탄 대사, Kahilil Al-Mosaw 이라크 대사, Grecia Pichardo 벨라루스 대사 등 6개국 의 대사 및 부대사가 자리했다. 개막식 후에는 다과와 함께 사진전 관람 시간이 마련되었다.

## 동유럽발칸연구소-우크라이나어과 공동 정책토론회



동유럽발칸연구소와 우크라이나어과가 3월 12일(수), 한국외대 대학원 브릭스 문화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태가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적 의미를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에는 대학과 국책연구소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CIS 전문가, 국가기관 및 언론계에서 참여했다.

##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 특강 개최



글로벌캠퍼스 학생복지처 경력개발센터(학생복지처장 윤성우)에서는 3월 20일(목), 글로벌캠퍼스 세향관에서 2014학년도 학습포드폴리오 '신입생세미나' 교과목을 연계하여 'HUFS Global 꿈을 위한 외대 비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84)가 '내 삶의 뒤편'이라는 제목으로 성공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특강에는 500여 명의 신입생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모든 학생에게 김상국 대표가 비타민을 선물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다독자 및 TOEIC/TOEFL 성적우수자 시상

도서관에서는 3월 18일(화), 도서관장실(관장 오명근)에서 2013학년도 2학기 다독자 및 온라인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다독자 시상식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기 최다 도서대출자인 다독상 1등과 온라인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 1등은 각각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지은 양과 영어대학 영어학과 고봉균 군이다. 다독상은 이지은 외 7명에게, 온라인 TOEIC/TOEFL 모의테스트 성적우수상은 고봉균 외 4명에게 상장과 상품이 수여됐다. 다독상 수상자에게는 시상 일로부터 1년간 도서 5권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2014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 내국인 신입교원

성명	소속
김수연	영어대학 영어학부
곽선주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민희철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이종오	사범대학 프랑수아어교육과
김장호	Language&Diplomacy학부
김지현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정미연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양성준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김태경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송연석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유정화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안미경	외국문학연구소

### 외국인 신입교원

성명	소속
Shaun Justin Manning	영어대학 영어학부
Gert Rudi Hofmann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Natalia Timofeevna Okatova	서양어대학 노어과
Boon Young Han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Tengsoe Tjahjono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Simuang Kewalin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Vijaya Sati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Krzysztof Jakub Iwanek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Nadir Engin Uzun	동양어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Zhang Guang Mang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Wang Dong Ming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Liu Chun Rui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Olivier Baible	중국어대학 중국언어문화학부
Wang Yun	중국어대학 중국외교통상학부
Komiya Makiko	일본어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Yoon Soo Kim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성명	소속
Chu Da Qi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Yang Xu Ro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Katsuragawa Tomoko	통번역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Mat Zaid Bin Hussein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Ratchaneeya Klinnamhom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Sureerat Bumrungsuk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Karizs Krisztina	동유럽학대학 헝가리어과
Mila Stamenkovic	동유럽학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Idalena Oliveira Chaves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Jose Carvalho Vanzelli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Lami Auwal Ibrahim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부
Sayed Chhattan Shah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Bernardo Nugroho Yahya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Mark Graham	외국어교육센터
Ryan Richar Fitzgerald	외국어교육센터
Helder Ferreira Do Vale	국제지역대학원 중남미학과

## 인도어과, '국제 힌디어 학술대회 서울 2014' 주최

인도어과는 인도 정부의 후원을 받아 3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글로벌캠퍼스 우덕홀에서 '국제 힌디어 학술대회 서울 2014'(International Hindi Conference Seoul 201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힌디어 교육(Hindi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Asian-Pacific Context)이라는 기획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힌디어 교육의 실례와 적용, 힌디어의 특성과 발전, 고전과 번역, 글로벌/디지털 시대의 힌디어 교육, 인도어 교육의 현실과 미래 목표 설정 등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의 열띤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도의 주요 공용어인 힌디어는 영어와 중국어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한편, 미국에서는 힌디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힌디어를 주요 국제 전략어로 채택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2007년부터 힌디어의 UN 공용어 채택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4학년도 1학기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

2014학년도 1학기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3월 19일(수),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퇴임 후 명예교수로 임명된 교원은 장병욱 교수(이란어과), 이종걸 교수(경제학부), 박정근 교수(철학과), 이윤배 교수(경영정보학과), 김정태 교수(경영정보학과), 최영수 교수(포르투갈어과)로 총 여섯 명이다. 김인철 총장은 수여식에서 "후학 양성과 학교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캠퍼스 교무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 제4회 이란 문화제 개최



'제4회 이란 문화제'가 이란어과 주최로 3월 26일(수), 서울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유달승(이란어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신정준(이란어과) 학생과 최승아(주한 이란대사관 직원)씨의 시 낭송 및 이맘 호메이니 학교 학생들의 전통공연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외대 산악회, '루굴라 세계초등원정대' 발대식



우리대학 산악회는 3월 26일(수), 교수회관에서 '2014 한국외대 루굴라(6,899m) 세계초등 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는 '한국외대 개교 60주년' 및 '외대 산악회 5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산악회는 네팔 다모다르 히말 루굴라봉으로 4월 4일(금)부터 약 한 달 반에 걸쳐 등반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김병준 단장(무역학과 65)을 비롯하여 총 8명의 등반대원이 참석했다. 루굴라 산군(Lugula range)은 안나푸르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미등정봉이다.

## 글로벌캠퍼스 '2013 글로벌 봉사단 해단식' 개최



글로벌 봉사단(글로벌캠퍼스)은 3월 26일(수), '2013 동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봉사단 해단식' (이하 해단식)을 공학관 207호에서 가졌다. 2013 동계 글로벌 봉사단은 인도네시아 수방에서 1월 13일(월)부터 9박 10일 동안 각종 교육봉사활동(크레파스 그림 그리기, 풍등 날리기 등), 문화교류활동(문화공연, 그룹 토론 등) 및 교육환경개선활동(벽화 그리기 등)을 수행하였다. 해단식은 개회사와 학생복지처장 인사말에 이어 글로벌 봉사단 활동보고, 인증서 수여, 폐회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우 학생복지처장, 학생감동팀장 및 담당자와 아시아교류협회 허동원 사무총장 등 협회 관계자, 해외 봉사에 참여한 봉사단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 국내 초청 세미나



한·중남미녹색융합센터(GCC-KOLAC) 정경원 센터장은 3월 27일(목),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장 곽재성 교수를 초청하여 '한·중남미 간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곽 교수는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IDC)' 분야의 발전 현황과 미래 가능성 그리고 현재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2005년 '파리선언'의 의미와 우리나라 ODA와의 향후 국제협력 방향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 제33회 외대 모의월드컵 개최



제33회 외대 모의 월드컵 결승전이 4월 4일(금), 서울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33회 모의 월드컵은 우리대학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고 올해 6월에 열리는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의미로 개최됐다. 3월 24일(월)부터 34개 팀이 출전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모의월드컵은 영어대와 노어과가 결승에서 격돌하여 노어과의 승리로 대망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33회를 맞은 외대 모의월드컵은 우리대학만의 대표적인 학생 활동으로 소속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여주는 행사다. 한편, 결승전에 앞서 진행된 시축행사에는 김인철 총장과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서울)이 함께했다.

## 박희권 주 페루대사(주 스페인 대사 내정) 초청강연 개최



4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박희권 주 페루 대사(스페인어 76, 스페인 대사 내정) 초청 강연이 열렸다. 박희권 대사는 '글로벌 시대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문화적 통섭현상이 두드러지는 현 사회에서 '성공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강조하면서,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 외국어 및 유머의 중요성, 시간 관리 방법 등 구체적인 성공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 이탈리아어과 개강 총회 및 장학금 수여

이탈리아어과 개강총회가 3월 28일(금),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열렸다. 이번 개강총회는 이탈리아어과 학생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광역화 모집으로 선발한 14학번 신입생들에게 이탈리아어과를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롯데호텔에서 케이터링한 음식들을 준비한 개강파티로 이루어졌으며, 1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행사 시작에 앞서 전성철 동문(이탈리아어과 74)이 후원하는 장학금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 정치외교학과 50주년 기념, 이성희 동문 특강



정치외교학과는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 3일(목), 서울캠퍼스 브릭스홀에서 이성희 이사장의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정의인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펼쳐졌다. 이번 특강에는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과 타 학과 학생 등 약 150명과 서경교 교수, 김면희 교수, 이대진 교수, 홍원표 교수가 참석했다.

## EU센터 주최, EU대사 및 벨기에 대사 특강 개최



EU센터는 4월 3일(목), 국제관 2층 애경홀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The Future of EU-KOR Strategic Partnership)'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토마스 코즐로브스키(Tomasz Kozłowski) 주한 EU대표부 대사와 김창범 주 EU & 벨기에 대사(연사로 나선 이번 특강은 한국과 EU의 협력관계, 한-EU FTA의 중요성과 한국에 대한 유럽의 인식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FTA를 비롯해 교육과 과학·기술, 에너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한국과 EU간의 협력을 보여주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친밀한 관계의 의미를 논의했으며, 특강 후반부에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 PRODIOSA 장학증서 전달식 개최



4월 7일(월) 오후 6시 30분, 대학원 브릭스 화상강의실에서 프로디오사(PRODIOSA)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프로디오사 장학금은 박재진(스페인어과 74) 프로디오사 대표이사가 2010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번 학기가 11회 차이며, 모두 약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프로디오사(PRODIOSA, S. A.)는 중남미 최대의 한인 무역회사로 현재 멕시코 시티에 본사를 두고 서울, 로스엔젤레스, 중국의 상하이와 샤오싱, 인도네시아의 반둥, 타이완의 타이페이 등 6곳에 지사가 있는 우수 기업이다.

한국외대-주성엔지니어링 업무 협약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 경력개발센터는 4월 3일(목), 대학본부 203호에서 (주)주성엔지니어링과 '청년강소기업체험 및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스페인 까밀로 호세 셀라 대학교와 MOU체결



우리대학은 4월 7일(월), 스페인 까밀로 호세 셀라 대학교(Camilo José Cela University)와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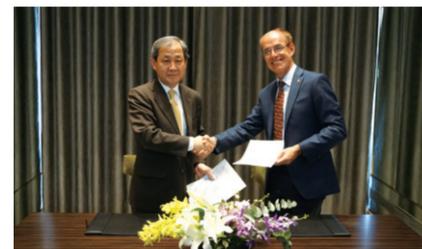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은 3월 14일(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과 '국제이해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영대학원-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글로벌CEO 과정 협약체결

경영대학원(원장 권석균)은 4월 21일(월),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와 글로벌 CEO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대-WWF(국제자연기금) 교류협정 체결



우리대학과 WWF(세계자연기금)의 교류협정 체결식이 3월 27일(목),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우리대학과 WWF(세계자연기금)의 교류협정 체결식이 3월 27일(목),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남궁영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개최



남궁영 원장(정치행정언론대학원)은 2월 25일(화), 프레스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1년,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획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창현 교수, 「형사소송법」 출간



이창현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형사소송법의 최신 중요 판례를 정리한 「형사소송법」(입추출판사)을 출간하였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경복궁 방문 안내 맡아



국제학부 박상미 교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경복궁 방문 안내를 맡았다. 4월 25일(금)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용산 전쟁기념관과 경복궁을 방문하였다.

유기환 입학처장, 전국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 선출



유기환 입학처장(프랑스어과 교수)이 3월 19일(수)에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정희 교수, 대토론회 개최



이정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3월 14일(금),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곽중철 교수, 한국통번역사협회장 연임



곽중철 교수(통번역대학원)가 3월 29일(토)에 열린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총회에서 4대 회장에 연임되어 향후 2년간 다시 한 번 한국통번역사협회를 이끌게 됐다.

김웅진 교수, 시앙스포에서 강의



김웅진 교수(정치외교학과)는 3월 18일(화)부터 28일(금)까지 프랑스 보르도(Bordeaux)시에 소재한 시앙스포(정치대학, Science Po Bordeaux)에서 총 6회에 걸쳐 'Korea and the Politics of Korea' 강의(정규 단계 강좌)를 진행했다.

### 2013학년도 후기 수료식 및

#### 2014학년도 전기 입학식

TESOL 교육원은 2013학년도 후기 수료식 및 2014학년도 전기 입학식을 각각 2월 19일(수)과 2월 21일(금)에 서울캠퍼스 애경홀에서 개최했다. 전기 입학식에는 2013년 11월과 2014년 1월에 입시전형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이성하 대외부총장과 이길영 TESOL 전문교육원 원장이 신학기 과정생들의 입학울 축하하는 축사를 진행했다.

#### TESOL for Moms & Dads 과정 신규 개설

엄마표 및 아빠표 영어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인 'TESOL for Moms & Dads(이하 TFMD)' 1기 과정이 개강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본 과정은 총 4과목(Theory & Practice/Fun Fun Activities/Storytelling/Classroom English)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한국인과 외국인 교수가 전담하며, 수강생들은 주중 오전반과 주말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TFMD 과정 수료 시에는 한국외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자에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 자녀 동반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한국외국어대 동문 장학금 신설

TESOL 교육원은 한국외대 학부 졸업생을 위해 동문 장학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9월에 개강하는 201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2014학년도 후기 일반·특별전형 모집 일정

**모집일정** 일반전형 : 2014년 5월 19일 ~ 26일

(면접전형 : 2014년 6월 1일)

특별전형 : 2014년 7월 14일 ~ 21일

(면접전형 : 2014년 7월 26일)

**모집부분** 일반 TESOL : 주중 오전반/주중 오후반/  
주중 야간반/주말반/2(Off)+4(On)+1(실습)반  
어린이 TESOL : 주중 오전반/주말반

**수업일정** 2014년 9월 1일(월) ~ 2015년 1월 중순  
(약 5개월 과정)

**문의** www.tesol.ac.kr/02-2173-3502~4/  
tesol@hufs.ac.kr

### 2014년 봄학기 정규과정 개강

한국어문화교육원은 3월 5일(수), 이번 학기에 신규 학생으로 등록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입교식을 열고 봄학기 정규과정을 시작했다. 이로써 이번 봄학기에는 74개국, 5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 세종학당 재단 '태국 방콕 세종학당' 개원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중 하나인 '세종학당' 사업을 진행했다. 본원 소속의 파견교수를 각 세종학당으로 파견하여 1년간 각 학당의 운영과 감독을 맡도록 하며, 우리대학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글로벌캠퍼스 한국어 정규과정 개강

한국어문화교육원은 한국어 정규과정 입교식을 글로벌캠퍼스 HUFS Dorm 제1세미나실에서 열고, 3월 10일(월)부터 5월 20일(화)까지 10주간 한국어 정규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15개국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 태국 송클라대학교 특별과정 입교식

'2014 태국 송클라대학교 특별과정'의 입교식이 3월 18일(화)에 열렸다. 이번 특별과정은 태국 송클라대학교 푸켓 캠퍼스의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IBK, KRS 두 전공의 학생 33명이 특별과정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과 동시에 영어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수업 등을 수강했다.

### 싱가폴 Ngee Ann Polytechnic

#### 한국어 특별과정 진행

한국어문화교육원은 3월 5일(수)부터 3월 13일(목)까지 약 9일간 싱가포르 Ngee Ann Polytechnic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오전에 한국어 수업을 4시간 듣고, 오후에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 201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올해 1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거점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이민자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 다문화이해 증진을 지원하는 법무부 중점프로그램이다. 우리대학은 지역 거점 47개 중 서울 3거점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등 지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FLEX 1회차 정기시험 시행

FLEX센터에서는 2014년 1회차(02.16(일)) 정기시험을 전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용인, 대전, 제주)에서 시행했으며, 2회차 정기시험은 6월 1일(일)에 진행한다.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우리대학이 수년간 개발기간을 거쳐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이다. 정기시험은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로서,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FLEX는 국가공인자격(듣기·읽기)을 획득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http://flex.hufs.ac.kr, 02-2173-2532, 2529~30

###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 개최

우리대학이 주최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경시대회가 6월 15일(일) 개최된다. 본 대회는 올해로 25년째(초등학교는 12년) 진행하고 있는 권위 있는 외국어경시대회로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외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외국어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http://eflex.hufs.ac.kr, 02-2173-2532, 2529~30

#### 비정기 수시 위탁시험 소개

비정기 수시 위탁시험은 FLEX센터에서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비정기)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평가(개인 신청 불가) 시험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과 별도로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맞춤형 시험이다. 각종 외국어능력 측정 전담 부처, 정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그룹사, 일반기업체 등에서 채용, 인사고과, 승진, 파견, 어학능력평가 등의 자료로 다양하게 채택·활용하고 있으며 시행일정, 시간,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여 연중 수시로 시행이 가능하다.

#### 삼성인력개발원 2014년 지역전문가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2014년 삼성인력개발원 지역전문가 과정'의 입소식을 열고, 2013년 12월 22일(일)부터 2014년 2월 28일(금)까지 10주 합숙과정으로 본 과정을 진행했다. 해외 파견 예정인 삼성그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총 20개 어종, 총 35개 반으로 구성됐다.

#### 삼성탈레스 2014년 GBS 영어집중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3월 3일(월) 삼성탈레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삼성탈레스 GBS(Global Business Specialist) 영어집중과정' 입소식을 진행했다.



### 삼성그룹 상반기

####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에서는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파견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4주간 어학집중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베트남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3개 언어를 교육했다. 이번 과정의 참여 임직원은 과정 종료 후 삼성그룹의 평가를 거쳐서 해당 국가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 NHN GLC 일본어 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2월 3일(월) 'NHN Global Language Center 일본어과정' 입소식을 진행했다. NHN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국제사회교육원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아이마켓코리아

#### Intensive Biz English 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2014년 아이마켓코리아 Intensive Biz English 과정' 입소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총 7명이 1개 반으로 구성되어 Conversation, Listening & Pronunciation, Discussion, Writing, Biz English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 제1차 KB국민은행 GLC과정 입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2014년 KB국민은행 제1차 GLC과정' 입소식을 개최했다. GLC과정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언어 과정이며, KB국민은행 임직원 52명을 대상으로 14주간 주말 과정으로 진행됐다.



### 기업체 특수외국어 위탁교육

외국어연수평가원은 1월부터 외환은행 해외예비인력양성과정 6개반(중국어 2개반, 일본어 1개반, 스페인어 1개반, 독일어 1개반, 프랑스어 1개반), 외환은행 주말 외국어과정 1개반(스페인어 1개반), 삼성전기 베트남어 2개반, LG CNS 영어 위탁교육과정 2개반, 삼성화재손사 3개반(중국어 1개반, 베트남어 1개반, 인도네시아어 1개반) 등 현지파견 임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기업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외국어연수평가원, 상반기 정규과정 개강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상반기 정규과정이 2월 3일(월), 개강했다. 이번에 개강한 강좌는 20주 정규 주·야간 과정과 10주 야간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는 안전행정부, 한국철도공사, 체육인재육성재단,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SK케미칼, 한국소비자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기업과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지 적응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어학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tomor 터키문화교육원 2014년 상반기 개강

터키문화교육원에서 터키어 과정을 개강했다. 본 과정에서는 터키 앙카라대학교 tomer 본부에서 파견된 원어민 교수의 강도 높은 회화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터키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까지 배울 수 있다.

#### 2014년 2학기 교육일정

##### 여름방학특별과정

2014.07.14 ~ 07.30 월 ~ 금 09:30 ~ 16:30

##### 76기 20주 정규 주간과정

2014.08.04 ~ 12.19 월 ~ 금 09:30 ~ 16:30

##### 80기 20주 정규 야간과정

2014.08.04 ~ 12.19 월 ~ 금 18:40 ~ 21:30

##### 99기 10주 야간 회화과정

2014.08.04 ~ 10.10 월, 화, 목, 금 19:40 ~ 21:30

##### 100기 10주 야간 회화과정

2014.10.13 ~ 12.19 월, 화, 목, 금 19:40 ~ 21:30

### 다문이의 세시풍속 이야기

양민정 외/ 2013/ 국배판/ 184면/ 15,000원

『다문이의 세시풍속 이야기』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이 만들어낸 세 번째 이야기책이다. 이번 주제는 네 나라의(한국, 중국, 베트남, 몽골) '세시풍속 이야기'다. 네 나라의 세시풍속은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설날'과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을 모두 즐겁고 성대하게 쇠고 있다. 그래서 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네 나라의 설날과 추석이 어떻게 같고, 다르지 재미나는 읽을거리와 다채로운 그림들로 꾸었다.

### 대만의 대학교육

임대근 외, 黃俊傑/ 2014/ 신국판/ 272면/ 14,000원

황친지에(黃俊傑)의 『대학 교양교육의 탐색: 대만의 경험과 영감』(大學通識教育探索: 台灣經驗與啟示)이라는 책을 옮긴 것이다. 지은이가 머리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은 대만의 대학교육에 관해 크게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과 시각(제1부), 경험과 참조(제2부), 전망(제3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하고 있다. 지은이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김정국/ 2014/ 크라운판/ 280면/ 15,000원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에서 운영체제를 이수하기 위한 선수 과목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교재다. 본 도서에서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역사와 특징 소개, 병행 프로세스/스레드의 개념 및 커널과의 관계, 시스템 호출과 인터럽트 및 context switching의 관계, 프로세스 스케줄링, 주요 시스템 호출과 디스크 및 타이머 인터럽트 핸들러의 내부 소개, 프로세스 기반 병행 프로그래밍 및 관련 리눅스 API의 활용, 리눅스 파일 시스템과 관련 API의 활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리눅스 커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거시경제분석입문 (개정판)

김장열/ 2014/ 46배판/ 416면/ 20,000원

장차 경제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할 학생들에게 현대 거시경제학적 분석의 틀을 체득하는 기초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쓴 책이다. 2010년에 나온 초판의 체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을 부연 설명하여 개정판으로 새롭게 내놓았다. 또한, 초판에 없는 연습문제를 추가하고, 난이도를 높여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번역학과 번역철학

윤성우, 이향/ 2013/ 신국판/ 280면/ 20,000원

번역학전공자와 철학전공자의 협업으로 탄생한 책으로 국내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번역철학'이라는 화두를 새로이 던지는 연구서다. 번역학과 철학의 경계선에 서서, 번역연구에서 종종 자명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주요개념이나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번역학에서 개선되는 주요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책이다. 번역의 철학적, 인간학적, 윤리적, 역사적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일본제국주의1894-1945

정영진, W.G.Beasley(비즐리)/ 2013/ 신국판/ 360면/ 19,000원

『일본제국주의』의 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정치를 주도하는 집단들의 성격이 있고 그 성격은 여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일본 정치를 주도해온 사무라이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에 내재한 성격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변에 대한 불인식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이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일본이 제국주의를 전개하는 과정 또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스페인어 스피치 II (개정판)

한국외대 스페인어통번역학과/ 2014/ 크라운판/ 176면/ 16,000원(mp3 CD 포함)

외국인과의 대화에는 종합적인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 스페인어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듣기와 말하기인데 이 책은 이 두 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원어민의 녹음을 활용한 반복적인 듣기 훈련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페인어의 고유한 음역에 익숙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발음과 억양 및 강세를 습득하게 도와줄 것이다. 또한, 문장 암송을 통하여 스페인어 문형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작문과 실제적인 회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 중국어 기초회화 2

김진아/ 2014/ 46배판/ 256면/ 15,000원

『중국어 기초회화1』에 이어 나온 책으로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만든 학습서다. 『중국어 기초회화2』에서 다루는 단어와 문법, 문장은 기초과정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 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로 상황 대화를 꾸었다. 또한, 중간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들을 초급회화 수준에 맞게 각색하여 넣었고, 일반 회화만으로 배울 수 없는 간단한 표현과 단어들을 삽입하여 중국어를 흥미진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4대 총장 취임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제4대 총장 취임식이 3월 7일(금),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거행됐다. 박홍수 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은 신임 총장의 임명장 수여, 이남주 이사장의 치사, 김인철 신임 총장의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인철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이버한국외대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를 가꾸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외대 경영대학원과 교육협약

사이버한국외대는 한국외대 경영대학원과 4월 10일(목), 교육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교육협약을 통하여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은 한국외대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되는 CEO 경영전략 세미나 및 경영전문가 특강 등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재학생은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진행되는 원어민 교수와의 평일 오프라인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

### 대만 문조외국어대학교 인사령 총장 방문

대만 문조외국어대학교(文藻外國語大學校)의 임사령 총장과 8명의 방문단이 3월 21일(금), 사이버한국외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우리대학의 콘텐츠 기술 수준과 온라인 교육 환경을 견학하기 위한 것으로, 문조외대 방문단은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을 접견하고, 콘텐츠를 안내와 참관, 학교 시설 견학 등의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식이 2월 22일(토),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신·편입생의 입학 축하하는 축하공연과 입학식,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원어 노래패의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입학식에는 박철 총장을 비롯한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과 신입생, 그리고 신입생의 가족이 참석했으며, 축제 같은 입학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동판 제작 및 설치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대학원이 위치한 사이버한국외대 신축교사 1층 외부에 'TESOL대학원' 동판 설치 작업을 4월 12일(토)에 진행했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은 이번에 설치한 동판을 통해 정체성 확립과 재학생 자긍심 고취는 물론, TESOL대학원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이버한국외대, '고졸 인재 잡 콘서트' 참가

사이버한국외대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JOB) 콘서트'에 4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이틀간 참가하였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1:1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의 강점과 혜택, 학습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고등학생들에게 맞춤 입시정보를 제공하였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2월 22일(토),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 633명의 학생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6년 8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로 지금까지 6,284명의 졸업생이 사이버한국외대의 동문이 되었다. 박철 총장은 졸업생에게는 학위취득을 축하하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졸업생이 학위를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바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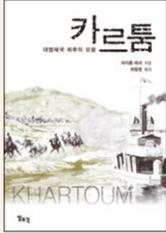
### 중국어학부, '2013 동계 해외어학연수'

사이버한국외대 중국어학부가 1월 12일(일)부터 1월 19일(일)까지 7박 8일간 원종민 교수와 장린자 교수의 인솔 하에 대만 문조외국어대학교에서 해외어학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어학연수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박홍수 학장이 연수현장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연수과정을 시찰하고 격려하였다.

### 일본어학부, '2013 동계 단기문화탐방'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2월 6일(목)부터 2월 9일(일)까지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고베 등 4개 지역을 탐방하는 코스로 3박 4일간의 단기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에는 일본어학부 정현혁 교수의 인솔 하에 총 19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탐방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동문출간



**최필영 역**  
(국제지역대학원 01)  
『카르툼: 대영제국 최후의 모험』  
(일조각)



**김정겸**  
(철학 83)  
『담쟁이 인문학』  
(청어)



**이호석**  
(법학 91)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길벗)



**이기찬**  
(스페인어 72)  
『무역왕 김창호』  
(중앙경제평론사)



**이윤욱**  
(일본어 82)  
『시간도에 들꽃피다』  
(엘레빗)



**김경한**  
(법학 78)  
『평설 인물 삼국지』  
(북오션)

## 동문동정

### 유춘식 동문,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선출

유춘식 동문(영어 83)은 2월 28일(금), 전세계 100여 개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 270여 명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서울외신기자클럽(Seoul Foreign Correspondents' Club)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춘식 동문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경제신문 사에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 영문경제주간지인 'The Korea Economic Weekly'의 창간을 주도했으며, 1994년에 로이터통신 서울 지국에 입사해 2002년부터 서울지국의 부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최영우 동문, 한인회장 취임

최영우 동문(영어 61)은 3월 1일(토), 홍콩 총영사관에서 개최된 제66회 홍콩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제 48대 한인회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2016년 2월 까지 2년이며, 최 회장은 한인회장뿐만 아니라 한국 국제학교의 이사장으로도 봉사하게 된다.

### 유병완 동문, 1천만 원 장학금 약정

유병완 동문(영어 74, 외외회회장)이 3월 6일(목), 발 전협력팀에서 재외대회문동문회(회장 최병주) 후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약정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외대 재학생 중 휘문고 출신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는 조건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각 1천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약정했다.

## 공사

성명	학적	인사내용
김근수	독일어교육78	한국관광공사 이스탄불지사 지사장
김기중	스페인어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공조달팀 팀장(차장급)
김명현	일본어79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소장
김차중	행정79	한국가스공사 경영관리처 처장
명권식	행정79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영업기획팀 팀장
박병남	일본어79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장
박일범	영어82	한국석유공사 석유사업처 처장
신병섭	독일어교육80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실장
안상준	영어89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세션운영팀 팀장
여태수	영어84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팀 팀장
오기석	경영정보86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담진지사 농지은행부 부장
유영산	스페인어88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처장
이병찬	일본어84	한국관광공사 베니카사업팀 팀장
이승	국제통상81	한국가스공사 자원개발처 자원기획팀 팀장
이승환	경제87	한국투자공사 홍보실 실장
이장표	영어76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이재상	독일어82	한국관광공사 기획조정팀 파트리더
이태혁	프랑스어84	한국관광공사 마케팅기획팀 파트리더
이희운	국제통상89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ես팀 팀장
정진수	일본어84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팀장
조대홍	스페인어83	한국석유공사 생산관리처 페루출장소 소장
최오현	법86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본부장(2급)
한연희	스페인어통번역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멕시코시티무역관 부장
허재영	일본어89	한국투자공사 대재운용실 실장
현상수	글로벌경영81	한국가스공사 도입지원처 수송운영팀 팀장

## 정부기관

성명	학적	인사내용
김만식	행정87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 부장
강중문	공공정책(석)03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호계 팀장(경정)
구기성	인도어78	국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행정79	국회사무처 산인통상지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겸	스페인어76	OECD 금융기법국 부국장
김안식	법76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김용주	네덜란드어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김인수	행정7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사부장
김인호	체코,슬로바키아어90	충남지방경찰청 외사계 계장(경정)
김중성	중국어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장
김진혜	법9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태용	이란어81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부장(2급)
김현준	아프리카어86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부이사관)
김현준	아프리카어8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김효경	법89	서울동부지방경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김희순	영어92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여성가족아동과 과장
노대우	스페인어80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지사장
마광열	영어83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문덕호	프랑스어79	외교부 시애틀 총영사
문성기	프랑스어80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팀 팀장
박상욱	러시아어92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서기관(4급)
박윤식	태국어82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남부본부 본부장
박종암	경영84	기술보증기금 부천기술평가센터 지점장
백민수	러시아동유럽지역(석)90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연수팀 팀장

서형석	스칸디나비아어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설범식	법81	대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심기보	영어82	경기도 안양 부시장(2급)
안백수	신문방송93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팀장

성명	학적	인사내용
양상근	법89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2과장
오강탁	행정D(박)93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본부 본부장
오성수	경영88	한국국제협력단 미래비전실 실장
오재성	노어78	서울시 체육진흥과 과장
윤휘영	법77	충북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 경정
윤재호	정치외교82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 부장
이경호	영어83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기관
이규호	스페인어8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지사장
이상덕	포르투갈어79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국장
이승민	법85	근로복지공단 경영지원국 인사부 부장
이어연	스페인어8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부장
이종경	신문방송85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장
이종대	국제경영(석)8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국 국장
이창중	행정85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 연구정책과 과장
임재주	국제통상84	국회사무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이사관
장주병	경영정보D(박)00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활용 부장
전명환	영어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전태현	행정77	수원시 제1부시장
전형표	법85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운영팀 팀장
정병하	독일어87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
정승하	법84	한국예탁결제원 총무부 부장
정종혁	스페인어86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원장
정준희	국제관계(박)1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정지도	국제금융(석)0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리스크관리단 단장
정희영	신방D(박)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조경규	경제8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 실장
조동시	경제81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팀장
조준억	아랍어85	해양경찰청 교육원 총무과 과장
주정돈	프랑스어85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비서실 실장
최시역	인도어86	국회사무처 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최정원	법90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동지점 팀장
최진욱	정치외교78	통일연구원 원장
최창규	교육경영(석)98	경기도립삼남도서관 관장
허태영	공공정책(석)03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기획팀 팀장
한재호	영어85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예산팀 팀장
함승훈	한·영(석)88	한국국제교류재단 인사교류팀 팀장

## 언론

성명	학적	인사내용
강영은	프랑스어82	MBC 기획사업국 부국장 겸 문화사업부장
권상희	신문방송87	전자신문 정보산업총괄 정책팀 부장
권진택	경영84	연합뉴스 TV 경영기획실 실장
김강석	신문방송78	SBS 비서실 실장(부국장급)
김광민	독일어80	MBC 드라마본부 드라마운영부장
김기석	경영정보90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차장
김도형	일본어81	한겨레 콘텐츠개발팀 팀장
김병수	신문방송83	EBS 방송제작본부 본부장
김상운	마인어77	MBC 논설위원실 실장
김소영	영어91	MBC 취재센터 사회2부장
김영탁	정치외교84	KBC 광주방송 보도국 국장
김영실	아랍어78	MBC 광고국 국장
김용석	행정93	동아일보 편집국 소비자경제부 차장급
김주혁	영어78	서울신문 편집국 선임기자
김철홍	이란어79	한겨레 사설국 사업기획위원
김정중	신문방송89	세계일보 외교안보부 차장대우
류기혁	정치외교83	서울신문 경영기획실 인사부 부장(부국장급)
류수근	영어83	스포츠클럽 편집국장
문영실	영어83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민경중	중국어83	CBS 마케팅본부 본부장
박근표	정치외교81	YTN 시청자센터 센터장
박문규	신문방송84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
박용재	일본어79	경향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재일	정치외교80	영남일보 사회부 부장
박재형	프랑스어97	서울외신기자클럽 제1부이사
박종복	정치외교88	KBS 보도본부 스포츠클럽 스포츠취재부 부장
박종현	마인어92	세계일보 차장
상수중	인도어82	YTN 선거단 단장
신동석	프랑스어84	국민일보 종합편집2부장
신승근	정치외교86	한겨레신문 문화부 대중문화팀장
심원택	영어77	MBC 시사제작국 국장
심원택	영어77	MBC 아카데미 사장
안우영	영어78	강릉·삼척MBC 사장
윤원중	영어84	스포츠클럽 대표이사
우준호	포르투갈어84	조선일보 CS메트로팀 팀장(부장)
윤수	컴퓨터공학86	연합뉴스 뉴미디어개발부 부장
윤윤식	신문방송87	한겨레신문 편집국 사진부 뉴스사진팀장
윤재근	행정75	MBC스포츠클럽 이사
이법록	영어82	해럴드 CS본부 본부장
이재창	영어82	지식사회부 부장
이전호	한국어교육81	CBS 콘텐츠본부 보도국 선임기자
이정내	영어82	연합뉴스 뉴미디어기획부 부장
이종락	신방D(박)07	서울신문 편집국 사회부 부장
이치문	영어80	국제신문 뉴미디어국 국장(이사)
이태희	국제통상90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정치팀장
이현주	경제81	KBS 보도본부 보도국 주간
임정호	국제통상80	파이낸셜뉴스신선 산업부장 국장대우
전영재	법87	조선일보 CS대외협력팀 팀장(차장)
전진수	신문방송89	MBC 예능기획제작2부장
정성욱	정치외교89	EBS 방송제작본부 진로직업청소년부 부장
정연용	행정91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경영교육팀 차장급
정용중	한불(석)88	MBC 보도국 부국장
정윤수	국제통상85	대구방송 광고문화사업국 국장
정재경	경제81	광주일보 편집2부장 직무대리
정창훈	영어77	KBS 보도본부 보도국 경영방송센터 센터장
조승희	네덜란드어87	YTN 글로벌뉴스센터 글로벌기획팀 팀장
조현희	스페인어77	MBN 대표이사 전무
천시영	행정77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최문열	터키어83	스포츠클럽 대표이사
최재혁	터키어80	MBC 기획사업국 국장
한기현	프랑스어80	MBC 경영지원국 국장
홍석주	중국어90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수도권팀 경기파트 차장급
홍성호	신문방송79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기사심사 부장(부국장대우)
황중현	법88	MBC 라디오제작2부장

# Alumni

HUFS 동문동정 뉴스

HUFS NEWS

2013.12.01 ~ 2014.03.31

## 금융

성명	학적	인사내용
김미선	스페인어82	신한은행 시너지지원부 부장
강병훈	영어81	KB국민은행 테헤란로지점 지점장
강윤철	경영81	KEB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 지점장
고상준	경영81	신한은행 개인어신심사부 부장(상사역(부서장대우))
국성호	독일어81	신한은행 수원시청역지점 지점장
권홍대	법89	하나은행 투자금융부 기업금융전담역
김규성	일본어86	KEB외환은행 동경지점 지점장
김기운	아랍어82	IBK기업은행 사상지점 지점장
김덕수	국제통상89	미래에셋증권 창원지점 지점장
김민수	법91	한화투자증권 강남지점 지점장
김부성	행정87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팀 팀장
김상훈	경영90	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 선임조사역
김성환	경제87	현대증권 계약지점 부장대우
김성호	국제경영85	키움증권 법안영업 상무
김영장	국제통상81	LG손해보험 자동차보상담당 상무보
김영하	이란어81	하나은행 파크타운지점 지점장
김홍술	법89	한화투자증권 소비자보호파트 파트장
김준수	독일어81	KB국민카드 기획본부장
김지일	스페인어86	신한금융투자 아랍지점 지점장
김태은	경제79	신한은행 영업추진그룹 본부장
김태훈	이탈리아어87	동부화재 공기업 2부 부사장
김형국	경영83	동부화재 감사파트 파트장
김형찬	국제통상80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김홍중	이란어82	LG손해보험 경북GS3지역담당(부서장급)
김희원	스칸디나비아어79	수출입은행 대전지점 지점장
나옥수	행정82	삼성증권 송파지점 지점장
노상욱	법83	KB국민은행 청담동지점 지점장
도상훈	경제81	현대증권 중로지점 부장대우
박대성	법88	키움증권 IB사업본부 구조화금융팀 팀장(이사)
박시철	행정82	신한카드 기업영업본부 본부장
박중현	마인어96	우리은행 뚝문사로지점 지점장
박철	법84	KB국민은행 현미동지점 지점장
배성수	아랍어85	한양증권 이사대우
손경익	정치외교76	농협은행 부행장
신민호	이란어79	신한은행 주안남지점 지점장
신영재	독일어84	우리은행 본사 자금결제지원부 부장
안병호	마인어90	수출입은행 청주지점 선임심사역
안재진	국제통상81	우리은행 중로3기점 지점장
안희용	스페인어82	KB국민은행 불광동지점 지점장
오광범	일본어86	이트레이즈증권 업무기획팀 팀장
오명식	영어83	하나은행 동광주지점 지점장
오의중	경제83	KB국민은행 구로남지점 지점장
원창선	컴퓨터공학87	신영증권 IT기획팀 부사장
유장호	영어81	현대해상화재보험 기업영업2본부장(상무)
윤두열	경제84	메리츠화재 일반보험본부 상무
이관수	경제87	KDB대우증권 관악지점 지점장
이병권	이탈리아어87	삼성증권 수지지점 지점장
이상국	영어83	우리은행 양재북지점 지점장
이상우	태국어85	KB국민은행 인천화회지점 지점장
이승현	보험경영89	KDB생명 상무
이홍출	일본어82	현대증권 국제영업부 부사장
이우공	네덜란드어74	하나금융투자 CFO - 부사장
이우공	네덜란드어74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투자 CFO - 부사장
이정우	영어87	하나은행 포승공단지점 지점장
이창일	법88	신한생명 백록지점 지점장
이재균	중국어84	신한생명 제휴동부본부 본부장
이재호	국제통상84	신한은행 글로벌 사업부 소속(베트남은행 본점) 조사역
이필보	마인어79	우리은행 남대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이현연	경제84	신한금융투자 삼성역지점 부장
이호영	프랑스어81	수출입은행 대선조선 경영관리단 단장
이호준	철학83	KEB외환은행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성명	학적	인사내용
이희락	스페인어83	KEB외환은행 반포동지점 지점장
전귀환	경제83	신한은행 남부메이플 금융센터 센터장 겸 RM
전상재	경제87	우리투자증권 인사선지점 지점장
전영길	경제80	KDB산업은행 종합기획부 부사장
정경원	법89	현대증권 강남지점 부장대우
정문국	네덜란드어78	ING생명 ING생명 사장
정석진	프랑스어84	신한은행 월곡동지점 지점장
정성근	일본어86	신한카드 광화문지점 지점장
정우영	영어81	KEB외환은행 여신심사부 팀장 겸 수석심사역
정창희	경제84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상무)
조영식	타이어82	KB국민은행 춘천지점 지점장
조준희	중국어74	한국투자증권 시외이사
최기범	국제통상86	삼성증권 평촌지점 총괄지점장
최덕재	경영83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팀장(2급)
최홍연	국제금융(석)05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투자부 부장
최정현	경영82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최창민	국제통상81	키움증권 전무
최형태	경제78	KEB외환은행 종로지점 지점장
추경호	영어79	신한금융투자 출세일그룹 부사장
하재구	일본어86	KDB대우증권 광화문지점 지점장
한충현	경제85	하나은행 뚝문사로지점 지점장
현종원	중국어번역87	신한금융투자 온라인자산관리센터 부사장
황대규	영어통번역85	신한은행 갈현동지점 지점장
황승연	스페인어80	광주은행 동문지점 지점장
황용택	영어84	현대카드 법인사업본부 상무
황정욱	국제통상90	수출입은행 수은인금융회사 선임조사역

## 대학

성명	학적	인사내용
권영성	한국어교육88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영관리실 전략홍보팀 팀장
김성철	경제80	명지대학교 기획조정실 실장
김윤찬	이탈리아어77	대구가톨릭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김원경	경영D(학)97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남궁술	법81	경성대학교 법과대학장
노연홍	노어75	가천대학교 가천뇌융합과학원 원장
심용보	러시아81	대구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 과장
유왕우	스페인어80	배재대학교 주시경대학장, 창업·취업교육부장, 융복합학부장 겸임
이관세	법72	경남대학교 총장특별보좌역 석좌교수
이길주	노어노문D(학)87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학과장
이재봉	영어77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양교육센터장
이주만	노어75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임영중	노어82	한양대 이노베이션대학원 행정팀 팀장
조원호	노어78	경성대 인문대학 학장

## 기타

성명	학적	인사내용
견병문	글로벌경영84	(주)보광패밀리마트 운영지원본부 본부장(이사)
경성영	인도어78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실 차장
김경만	영어82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실장
김근선	신문방송81	신세계 그룹 전략실 CSR 사무국 사무국장 (부서장보)
김동석	스페인어8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겸 세종본부장
김민호	아랍어90	제이콘텐트리M&B 판매마케팅팀장
김병욱	경제79	기아자동차 회계부 이사
김삼두	독일어87	한국마사회 지사개발팀 팀장
김석필	프랑스어80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겸 글로벌B2B센터장
김연강	스페인어통번역82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총책임자개발팀장
김영섭	법85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 해외진화담당 상무보
김유영	국제통상77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판매법인 전무
김인규	법77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 소장
김진수	아랍어75	㈜중서 부사장
김태엽	스칸디나비아어87	해외건설협회 기획홍보실 실장
나남규	독일어80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남궁영	정치외교76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명성환	이탈리아어80	삼성전자 영곡지사 전무
박규형	태국어82	대우건설 건축기획팀 상무보
박병대	영어77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부사장
박세화	스페인어84	삼성SDS 공공사업개발 담당부장 ST사업 2팀 팀장(상무)
박수철	무역D(학)88	한국생산성본부 컨벤션비즈니스센터 센터장
박인봉	아랍어78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부장
박장석	경제74	SKC 부회장
박화섭	스페인어90	분당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지원팀 팀장
방경만	경제90	KT&G 브랜드실 실장(상무)
변창성	프랑스어78	㈜풍산 홍콩·심천 법인장(상무)
서영세	영어80	포스코루트스강 대표이사 부사장
성인환	경영86	현대자동차 인사가획팀 이사
손장원	스페인어79	기아자동차 중남미지역본부 이사
송태준	영어86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술실 전문위원
신상현	한영(석)83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안민수	포르투갈어76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안병모	스페인어68	기아자동차 부회장
양상범	프랑스어83	KT&G 안산지사 지사장
양식	일본어73	롯데루스 대표이사(전무)
양웅	중국어85	글로벌하이퍼 상해지점 상무보
여제명	일본어83	한국마사회 마케팅팀 팀장
원유석	영어85	아시아나항공 화물영업담당 상무보
이승국	일본어88	호텔롯데 롯데렌슬림 이사대우
이승범	스페인어79	대한항공 전무A
이충원	경영84	피플라이프 사장
이태운	경영88	여신금융협회 홍보부 겸 감사부 부장
이희찬	영어87	현대자동차 인사가획팀 이사대우
임영민	정치외교77	삼성그룹 금융일류화추진팀 팀장
임준신	포르투갈어85	파라다이스세가지미 상무보
장대중	태국어78	롯데하이마트 이사
전용승	한불(석)85	삼성전자 중국법인 전무
정영수	국제통상86	제이콘텐트리M&B 3본부장 이사대우
정재락	행정89	한국수력원자력 청평정책팀 팀장
정창중	독일어83	글로벌하이퍼 상무
조완석	중국어85	글로벌하이퍼 상무
조정욱	스페인어82	호텔신라 상무
진영희	독일어교육80	SK케미칼 바이오소재사업부 본부장(전무)
채수석	프랑스어80	대우전자 냉장고마케팅팀 상무
최민영	정치외교83	대한항공 예약관리부 상무보
최태영	타이어80	한국생산성본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본부장
하윤수	스페인어83	중앙엔젤씨 DS부문 본부장
허승우	경영85	롯데쇼핑 재무부문 부문장(이사대우)
황인자	영어74	새누리당 의원

# Donation

HUFS 발전기금 뉴스

HUFS NEWS

## 재동경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 대학 재동경 동문회 정기총회가 1월 22일(수), 동경 캐피탈호텔에서 신년회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일본 지역에서 활약하는 우리 대학의 동문들은 정기총회에서 2014년 청마해를 맞이해 더욱더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내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철 총장은 타국에서도 늘 외대를 생각하며 성원해준 모든 일본 지역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재동경 양인집 동문회장은 8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한 박철 총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로 화답했다.

## 이상철 동문, 1억 원 약정 기탁 완료

'이상철 동문(해외 Executive-MBA, 뉴욕 4기) 학교발전기금 5천만 원 기탁식'이 3월 25일(화)에 개최되었다. 이 동문은 이번 기탁으로 지난 2011년에 약정했던 1억 원에 대한 기탁을 완료했다. 이상철 동문은 성공한 재미사업가로서, 현재 Azure, CSJ & Co, Inc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최근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여 외대 동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이덕선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이덕선 장학금 추가 100만 달러 기탁

'이덕선 장학금' 수여식이 4월 16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이덕선 회의실(203호)에서 열렸다. 김시홍 학생복지처장(서울)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은, 이덕선 회장을 비롯하여 해외 동문들(최상학(영어54)동문 내외, 강철은(정외64)동문 내외, 이영희(영어70)동문, 임중부(영어70)내외, 최해숙(일외60)동문, 조원철(독어58)동문, 이종현(독어58)동문)이 참석하여 장학생을 축하해주었다. 금년 이덕선 장학금은 총 6명(서울 3명, 글로벌 3명)의 장학생에게 수여되며, 장학생들은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는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덕선 회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60년을 축하하면서 격려사에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철 총장은 장학생들에게 이덕선회 장처럼 널리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덕선회장은 올해 신규로 100만불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 Donation List

HUFS 발전기금 약정자 명단

HUFS NEWS

2013. 12. 06 ~ 2014. 03. 31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임대영	동양어대학 터어키어과 75 동문	1,000,000
권기철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83 동문	1,000,000
권순철	영어대학 영어과 80 동문	1,000,000
기혜경	인문대학 언어인지학과 96 동문	20,000
김정민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06 동문	1,000,000
김석찬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92 동문	50,000
김승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6 동문	8,000,000
김정훈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83 동문	4,062,580
김종진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0 동문	100,000
김지현	국제지역대학 프랑스학과 84 동문	120,000
김해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91 동문	200,000
김형준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3 동문	500,000
문혜영	영어대학 영어과 77 동문	1,000,000
박광화	일본어대학 일본어과 84 동문	1,000,000
박수전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2 동문	1,000,000
박용철	법과대학 법학과 84 동문	120,000
박은정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7 동문	100,000
박종원	영어대학 영어과 59 동문	300,000
서중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73 동문	5,000,000
송미경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00 동문	100,000
유시영	서양어대학 노어과 84 동문	120,000
윤대영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1 동문	5,000,000
윤윤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66 동문	15,000,000
이덕환	인문대학 철학과 81 동문	1,000,000
이동관	자연과학대학 전자물리학과 11 동문	200,000
이상한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90 동문	100,000
이춘희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5,000,000
이충원	글로벌경영대학 경영학과 93 동문	1,000,000
이호덕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0 동문	10,000,000
임철우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71 동문	1,000,000
장유경	석사 한불과 06 동문	100,000
정장철	서양어대학 네덜란드어과 89 동문	100,000
최동하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9 동문	500,000
최호성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92 동문	6,484,899
한철호	동양어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78 동문	20,000,000
강덕수	외대교수	13,638,545
김광섭	외대교수	6,470,000
김민녕	외대교수	27,277,090
김원명	외대교수	12,100,000
김유강	외대교수	6,470,000
김중렬	외대교수	13,638,545
박노호	외대교수	27,277,090
박정근	외대교수	5,000,000
박철	외대교수	7,300,000
박치완	외대교수	7,600,000
박희영	외대교수	2,200,000
서재곤	외대교수	3,000,000
윤성우	외대교수	11,500,000
이정희	외대교수	27,277,090
임일환	외대교수	4,900,000
정태상	외대교수	27,277,090
정경원	외대교수	13,638,545
최효영	외대직원	1,000,000
김태숙	학부모	30,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권희덕	기타(개인)	1,681,500
김상래	기타(개인)	1,000,000
김석수	기타(개인)	2,000,000
박영식	기타(개인)	6,000,000
차상식	기타(개인)	20,000,000
(주)녹십자	기타(기업)	1,000,000
(주)동림	기타(기업)	3,404,000
(주)이엔제이코리아	기타(기업)	30,000,000
ETS코리아	기타(기업)	6,372,6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10,000,000
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타(기업)	1,000,000
캐피나라	기타(기업)	20,000,000
키다리영어사	기타(기업)	2,000,000
키움증권	기타(기업)	3,363,000
하나대투증권(주)	기타(기업)	3,374,000
한국가스공사	기타(기업)	10,918,000
(재)덕영재단	기타(단체)	124,000
(재)라이온스	기타(단체)	2,000,000
(재)러시앤캐시배정장학회	기타(단체)	13,752,000
(주)동아이지에듀	기타(단체)	6,513,013
(주)삼경엔터프라이즈	기타(단체)	10,000,000
(주)와이엠종합건설	기타(단체)	3,374,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21,000,000
남정장학회	기타(단체)	15,000,000
대순진리회 수색방면	기타(단체)	5,068,000
돈암장학회	기타(단체)	4,000,000
동부문화재단	기타(단체)	6,726,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53,479,000
미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3,374,000
미래에셋자산운용	기타(단체)	49,349,0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8,606,000
백미장학금(마인어과)	기타(단체)	3,000,000
백암복지재단	기타(단체)	5,613,000
법무법인참	기타(단체)	1,000,000
본술김중환장학재단	기타(단체)	3,363,000
삼신배움과나눔재단	기타(단체)	1,8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48,900,000
삼송장학회	기타(단체)	5,600,000
생명보험협회	기타(단체)	8,0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7,584,000
성음문화재단	기타(단체)	2,000,000
승희장학문화재단	기타(단체)	3,363,000
신라문화장학재단	기타(단체)	17,000,000
아산재단	기타(단체)	17,805,000
엘트웰민초장학재단	기타(단체)	10,089,000
외대교회	기타(단체)	10,000,000
용운장학회	기타(단체)	3,000,000
의송장학회	기타(단체)	4,370,000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기타(단체)	1,2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24,894,000
포스코청암재단	기타(단체)	36,427,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1,8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7,748,000
형남진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홍산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12,000,000
통번역센터	부설기관	50,000,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58,0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부금 약정(기부)서

기부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택			
		직장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인적사항	근무처		부서/직위		
	전화	자택	휴대폰		
		직장	E-mail		
	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학부	입학년도	년
대학원			입학년도	년	
최고경영자과정			입학년도	년	
<input type="checkbox"/> 비동문					
약정(기부) 총액		<input type="checkbox"/> 현금 원	<input type="checkbox"/> 현물 원		
기부 지정분야		<input type="checkbox"/> 학교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교수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경영관건립기금	<input type="checkbox"/> 동문회관건립기금
		<input type="checkbox"/> 글로벌인재양성기금	<input type="checkbox"/> 후배사랑장학금	<input type="checkbox"/> 등록금한번대내기	<input type="checkbox"/> 이름남기기
		<input type="checkbox"/> 학과발전기금 : 대학	과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		
		<input type="checkbox"/> 지정기부금 :			
납부기간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1회 완납 (금 원) 년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할(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월납부액 ( 원, 회)	예금주 : 이체일 :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말일		
기부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학과)의 공익적인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우편)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lund.hufs.ac.kr)를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 기탁자 예우 안내

구분	1,000만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념품제공	0	0	0	0	0	0	0
학교발전 홍보물 제공	0	0	0	0	0	0	0
기부증서 증정 및 영수증 발급	0	0	0	0	0	0	0
평생 무료주차권 제공		0	0	0	0	0	0
외국어연수평가원 수강료 할인		0	0	0	0	0	0
기금네이밍(아호 등 지정)		0	0	0	0	0	0
감사패 증정			0	0	0	0	0
대천수련원 이용시 할인				0	0	0	0
평생 도서관 열람증 제공				0	0	0	0
출명칭 명명, 등판 부착					0	0	0
홍상 부조 부착							0

붙이는 곳

접는 선

미네르바장학금 캠페인  
서울캠퍼스

명수당장학금 캠페인  
글로벌캠퍼스

# 100년 외대의 영광을 이어갈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의 나뭇잎을 보내주세요

학창시절 낭만이 가득했던 아름다운 교정에  
우리 학과 장학금 나무가 자라납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여 우리 학과 나무는  
싱그러운 잎이 늘어갑니다.

2014년 6월,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캠페인 웹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장학금이 쌓여갈수록 웹사이트 우리 학과 나무의 잎도 무성해집니다.  
장학금캠페인의 기부금은 기부자님이 지정한 학과의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접는 선

보내는 사람

\_\_\_\_\_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9.1~2014.9.1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1 3 0 - 7 9 1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hoto Essay



40년 전 처음 문을 열었던 그때 그 장소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의 맛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영화장의 풍경

## 자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한 점에 어리는 추억

지나간 시간을 스스, 잊혀진 기억을 스스.  
그 맛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까만 춘장과 함께 버무려집니다.

입학식, 졸업식, 개강과 종강...  
특별한 날이면  
텅 빈 청춘들의 주머니와 마음을  
맛있게 채워주던 학교 앞 영화장.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묵묵히 외대 앞을 지켜온 그곳에 가면,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또렷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